APR 6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90 1982년4월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pril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인 쇄 인 : 박 정 서

교포상점들은 강도들의 밥인가?

손, 발에 입마저 묶여

상점주들 소문·보복 두려워 쉬쉬

코너 스토어를 상대로하는 강도들의 숫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가게주인의 제보로 형기를 치뤘던 범인이 같은 가게에 보복하는 경우도 있어 코너·스토어 보호대책이 시급해 졌다.

지난1일밤 토론토 동쪽끝 M버라이어티에 들어온 복면무장강도는 장총으로 주인K씨를위협, 미리 준비해온 노끈으로 발을묶고 수갑을 손에 채우고 가비지 백으로 입까지 틀어막은후 돈을챙겨 가게문을 잠근뒤 유유히도망쳤다.

또 지난 27일밤 발생했던 강도사건은 혼자있던여주인을 위협, 쿨러에 들어가게하고 돈을 꺼낸뒤 들어와 부인이 어디있느냐고 묻는 남편에게 "저기 뒤에 있다"면서 사라졌다.

또한 브램톤지역의 한상점주인은 경찰이 잡아온범인을 확인해주자 범인으로부터"너 나오면 두고보자'하는 소리를 들었고, 6개월뒤 형기를 치르고 나온 범인에의해 또다시 강도를당하기도 했다.

맘·앤드·팝스·스토어(Mom & Pop's Store) 즉엄마, 아빠가 경영하는 가게, 혹은 코너·스토어라고들불리우는 상점들은 토론토의 경우 대부분 한인들에의해 운영된다. 교포 상점주들은 상점을 팔때 불리해 지며, 또 법정, 경찰서에 끌려 다니며 시간을 뺏기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어 경찰보고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본사와 접촉한 강도를당했던 상점주들은 한결같이 소문이 나면 가게파는데지장이 있다면서 상점위치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이유로 토론토신문들의 기자들을 쫓아버렸다는 M버라이어티의 K씨는 같은 입장의 상점주들에 경각심을 주기위한 강도 대비책으로 (1)가급적 현찰을 남겨두지말며 분산시켜둘것. (2)은행예금은 어둡기 전에 끝낼것. (3)문닫을 시간에 특히 조심할것. (4)침착히 범인에 불안감 주지않으며 시간을끌것. (5)다소 자신이 있더라도 범인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것등을 당부했다.

메트로 경찰 55디비전의 데이비지 형사는 5일 현재 아직 M스토어의 범인이체포에의 단서를 못잡았다면서 핼로윈·마스크를 쓰고있어 최근 이 지역의 강도가 늘어나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포 K씨가 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K씨의 상점은 한적한주택가로 10시에 문을닫는코너·스토어. 지난1일밤 10시10분쯤 가게 불을끄고 밖으로 나와 문고리를 거는 순간, 가게옆 어두운 차고쪽에서 1명이 후닥따 뛰어와 장총을 들이대며" 가게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아차 이거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올려는 비명을 억지로 참으며 일단 다시 가게안으로 들어선 K씨가 살펴본 범인의 모습은 거의 6피트키에 얼굴에는 핼로윈·매스크를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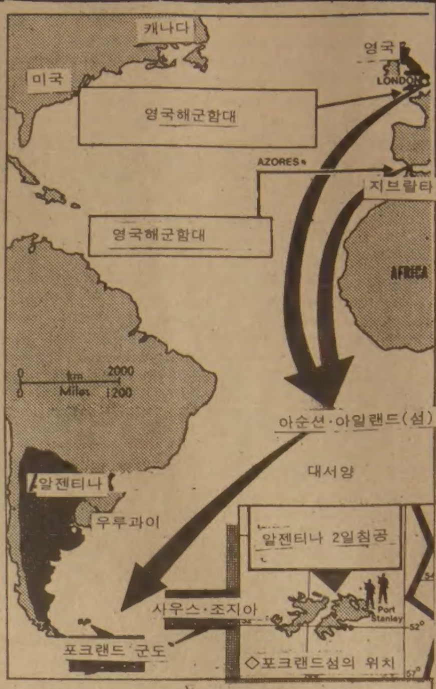
침착을 되찾은 K씨는우선 시간을 끌어야 겠다 는 생각으로"뭣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얘기할 필요없다 뒤로가라"고 말한 범인은 초범이 아닌듯 상당히 능숙, 침착한 솜씨로 K씨를 배를깔고 엎드리게 했다.

반항의 기색이 없이 시간을 끌기위해 꾸물대는K씨에게 범인은 손을 등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다. 이때 여자손님 하나가 상점중간까지 들어와 놀라 도망갔다. 범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준비 한 노끈으로 K씨의 발까지묶으면서"아프니 술술묶으라"는 K씨의 요청에"OK!"하며 조금 늦춰주기도 했다. "돈이 어디있느냐"고묻는범인에 K씨가 양복주머니를 가리키자 몽땅 꺼내집어넣고는 준비해온 가비지·백으로 K씨의 입을 막았다.

용무를 끝낸 범인은 상점문을 잠근뒤 사라졌다.

이날 K씨가 털린돈은매상의 일부인 약3백달러. K씨는 아직도 저녁만 되면 "오시시 하다"고 말했다.



◇포크랜드섬의 위치

영국, 알젠티나와 결전 임박

포크랜드군도 탈환위해 함대 급파

남미 알젠티나 근해의 작은 섬 「포크랜드」를 싸고 영국과 알젠티나의 결전이 임박했다.

알젠티나는 지난 2일 새벽 동부해상 450마일지점에 있는 영국령 포크랜드를 급습, 순식간에 점령하자 영국은 전해군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6개 함정으로 구성된 대 함대를 현지에 급파중이다.

알젠티나의 레오폴드·갈티에리 대통령은 알젠티나 영토인 포크랜드를 영국이 150년간 지배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안보이사회의 알젠티나 점령군 철수권고 결의를 거부했다.

알젠티나는 인구 1800명의 포크랜드 근해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의 관심은 국내문제에서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 섬을 침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혁명위원회가 지배하는 알젠티나에서는 최근 노조 데모등이 극렬히 일어났고 이같은 정치소요는 곧 갈티에리 대통령 지지 데모로 탈바꿈했다.

알젠티나 해병대의 침공당시 포크랜드에는 84명의 영국 해병대가 섬을 방위하고 있었다.

참공군중 중령 1명만이 피살되고 알젠티나 해병대 약간명이 부상했을 뿐 영국해병대의 피해는 없었다.

렉스·헌츠 총독은 해병대에 항복을 명령, 침공군은 정부청사에서 영국국기 유니온·잭을 내리고 알젠티나 국기를 달았다.

침공군은 총독과 영국해병대를 이웃 우루파이국으로 추방했다.

영국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항공모함 2척, 해병 1천명을 태운 영국함대가 현지에 도착하는 보름후 무력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전투기및 함정등 많은 군사장비를 알젠티나에 팔았으나 화력면에서는 영국이 훨씬 우세하다.

영국은 56년 스웨즈운하 침공사건(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3국 연합국이 스웨즈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를 침공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인 3일 의회를 소집, 이 문제를 토의했다.

소속정당을 많은 의원들은 알젠티나의 침공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마가렛·대처수상, 존·놋 국방장관, 캐링톤 외무장관의 사임을 요구했고, 캐링턴 장관과 고위 외무직 2명이 5일 아침 사임했다.

◇알젠틴 남단근해의 포크랜드섬 침공에 성공한 아르젠틴군인들이 2일밤 영국국기 유니온·잭을 내리고 알젠틴 국기를 게양했다. 이사진은 태평양전쟁 (대동아전쟁)때 미 해병대가 아오지마 섬을 일본군으로 부터 고전끝에 함락시키고 성조기를 게양하던 유명한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찍은것이다.

"소수민족을 공무원으로"

「온」주복합문화자문회의 촉구

온타리오 270개 정부기관 주요직은 거의 영국계 캐네디언들이 독점, 소수민족출신의 캐네디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온타리오주 복합문화자문위원회」(The Ontario Advisory Council on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가 결론지었다. 한국계 위원으로는 홍중표씨(맥스밀크스토어협회장)가 있는 이 자문위원회는 2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동위원회 산하의 「동등한 기회에 관한 특별연구반」(Task Force on Equal Opportunity)은 "온타리오정부는 자격을 갖춘소수민족 출신들을 주요 공무원으로 임명, 명실공히복합문화와 복합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소수민족 출신을쿼타제로 동용하는 것에는찬성하지 않았다.

조사에 의하면 887명의 공무원중 겨우 17.7%에달하는 155명만이 소수민족출신이며 영국계는 677 명 프랑스계는 45명이다.

전국적으로 영, 불계를제외한 소수민족은 전인구의 37%를 차지한다

<스포츠 퀴즈>

금년도 NHL 우승팀은?

지는 3월17일자 제1회 스포츠퀴즈 정답은 조영증선수이다. 퀴즈해설과 정답자 선발기사는 8일자 신문에 게재된다.

오늘은 제2회분으로 81-82년도 NHL 우승팀 알아맞추기다. (스포츠단상 참조)

정답은 오는 4월27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면 된다. 이 때는 이미 2차전까지 치러 4팀으로 줄었을 때이므로 정답확률은 아주 높아질 수 있다.

정답자중 2명을 선발 브랜돈 스포츠사(대표 이건영)가 제공하는 테니스슈즈 1켤레 또는 골프용구가 각각 증정된다. 이 밖에 탈락된 20명에게는 대한항공(KAL)이 제공하는 야구모자가 증정된다. 정답자가 적으면 주상품은 다음회로 넘어가고 야구모자는 20명을 선 발, 증정된다.

응모방법은 우편에 한해 접수하며 27일 소인분까지 추려진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SUITE 1140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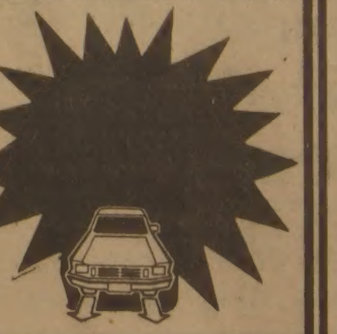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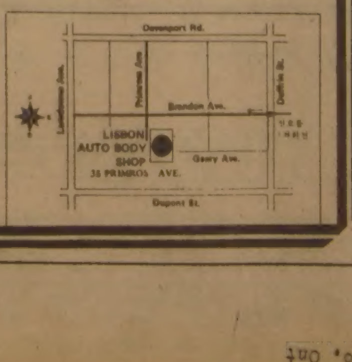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오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보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종합보험

김 홍 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완전 BODY WORK!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썬그라스
30% off

품목 : 니나리치, 마비스, 로댕스독,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 등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 스포츠 단상〉

NHL 플레이·오프 돌입 각팀의 전세및 우승확률

〈 유승민 기자 〉

4일을 마지막으로 NHL하키는 예선을 전부 마치고 열전의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다. 토론토시민들은 몬트리얼이나, 버팔로등을 가지 않고는 천상 집에 앉아 TV나 지켜봐야 한다. 기우뚱거리던 메이플립스는 이미 2주전 플레이·오프에서 완전 탈락한데 이어 4일밤 필라델피아와의 마지막 게임도 7:1로 놓쳐 종합19위에 머물렀다.

NHL플레이오프 경기방식은 '81~'82시즌부터 변경 각조별 우승자를 가린후 각 컨퍼런스 우승자끼리 대결한다.

작년까지는 1위 대 16위, 2위 대 15위등 잘한팀과 가장 못한팀끼리 대전한후 같은식으로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방식을 취했으나, 금년에는 4개조 4팀씩 플레이·오프에 진출, 각조 우승자를 가린후 조별 대결을 벌인다.

시즌 전 부터 예상했으나 서부지역 팀들을 중심으로 토론토, 에드먼턴등이 속한 캠벨, 컨퍼런스 팀들은 종합순위에서 웨일즈팀들에게 훨씬 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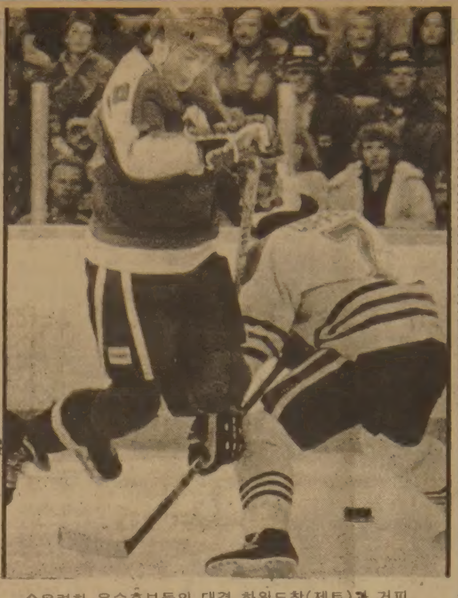
그러나 금년도 스탠리컵의 우승자가 웨일즈 컨퍼런스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서부지역이 유리할 수도 있다.

동부에는 강팀들이 몰려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나 서부조는 비교적 우승팀이 여유있는 경기를 벌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아무래도 1차전의 빅카드는 웨일즈·컨퍼런스의 아담스조로 몬트리얼(조1위)대 숙적 퀘벡(조4위)간 열전이 예상된다. 특히 퀘벡팀은 대 몬트리얼전에는 강해 몬트리얼이 작년에 에드먼튼에서 당했던 불상사(종합3위가 13위였던 에드몬튼에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0으로 탈락)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의 몬트리얼 대 퀘벡의 전적은 6승5패. 캐네디안이 앞서고 있다.

이밖에 1차전의 주요카드는 뉴욕레인져스대 필라델피아전과 보스턴대 버팔로전. 필라델피아는 2개월동안 부진, 코치가 바뀌는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들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길어도 오는 4월13일이면 모두 끝날 1차전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들은 오는 4월15일부터 스웨덴에서 거행될 세계아이스하키 캐나다대표팀 감독진. 플레이오프 탈락 5개팀중 토론토의 주장 릭·바이브, 워싱톤의 데니스·마룩등 7명만 대표팀 선수진에 선정됐다. 나머지 15명은 13일까지 1차전에서 탈락되는 팀중에서 간추릴 예정. 감독진은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레츠키의 에드먼톤, 라플레의 몬트리얼, 마이크 보시의 아일랜더등이 탈락되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그러나 이들 팀의 탈락확률은 아주 적다.



◇유력한 우승후보들의 대결. 하워드착(제트)과 거피(오일러7번)가 팍을 다투고 있다. 4일 오일러가 2:1로 제트를 물리쳤다.

어쨌든 오는 5월27일까지 갈 장장 2개월간의 플레이오프의 최종 우승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일보 스포츠퀴즈에서도 문제가 나왔으나, 플레이오프 진출 16개팀의 전세및 우승확률(괄호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아일랜드(2/5)—2년연승우승팀답게 보시, 트로티어, 포핀, 스미스등 공격, 수비 빈틈이 없다. 골리가 문제.

★에드몬턴·오일러(1/4)—경기만 풀린다면 캠벨·컨퍼런스 우승은 문제없다. NHL 영웅 그레츠키가 이끄는 젊은 선수들의 원기는 왕성, 다만 우승경력이 없는 것이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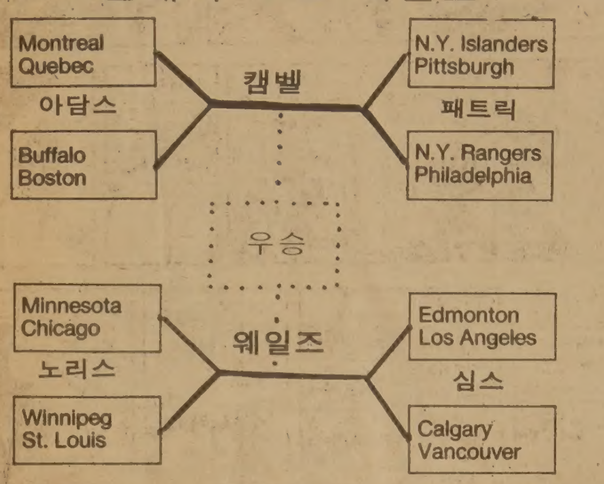
★몬트리얼·캐네디언(1/5)—NHL 사상 가장 우승경력이 많고 선수층이 두껍다. 일차전 퀘벡과의 대전만 넘기면 아일랜더스가 문제.

★위니펙·젯트(1/10)—금년도 NHL 최고의 루키 데이브·하워드착등 신인선수들이 만만치 않다. 어쨌든 최근들어 더욱 호조를 보이고 있어 스탠리컵의 다크호스.

★미네소타·노스스타즈(1/10)—작년도 결승까지 올랐던 노스스타가 이번에는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야심이 만만.

★뉴욕·레인저스(1/20)
★보스턴·브루스(1/20)
★필라델피아·프라이어즈(1/30)
★버팔로·세이버스(1/40)
★캘가리·프레임즈(1/50)
★퀘벡·노딕스(1/75)
★뱅쿠버·캐넉즈(1/200)
★세인트루이스·브루스(1/250)
★시카고·블랙혹스(1/250)
★L.A. 킹스(1/500)
★피츠버그·펭긴스(1/500)

플레이 오프 대진표



1회전 : 5전 3선승제
4월 7,8,10,11,13일
2회전 : 조별우승전 (7전4선승제)
4월 15,16,18,19,21,23,25일
3회전 : 컨퍼런스 우승전
4월 27,29일, 5월1일 또는 2,4,6,8,9,11일
결승전(스탠리컵 우승전)
5월 13,15 또는 16,18,20,22 또는 23,25,27일

광주일고·서중 동창회 탄생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 광주서중의 동창회가 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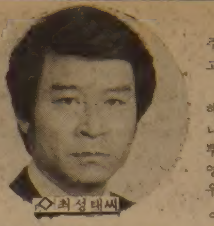
오는 8일(목) 저녁8시 아리랑하우스에서 첫모임을 갖기로 한 동교의 몇몇 동창들은 이를 계기로 정식 모임을 만들어 동창들끼리의 친목의 기회를 갖겠다고 한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광주서중 36회, 광주일고 9회 출신인 최복기씨는 1일 '더 많은 동창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씨의 전화는 465-2929.

…〈독자제언〉…

이제는 대화의 광장으로

최 성 태



◇최성태씨

H형 실룩방 인생이기에 7년여를 새차반 생활의 연속으로 방황하다보니 존엄한 H형께 안부한번 못전한죄 용서하오.

그간 여러곳의 친지들에게 많은 폐를 끼쳤지. 그러나 H형, 수많은 방황속에서도 의를 벗어나거나 파렴치한짓은 안했으니 안심하오. H형이 알다시피 이 무지한놈은 발랑 까졌으면서도 순진한데가 깃들어있으니 말이야.

그간 쓰라렸던, 그리고어수선한 신문지상의 면면들을 생각할때 쓰리다 못 해 아프기에 H형께 횡설수설로 안부전하는것을 용서하오.

75년11월29일, 오직 한민족이 뭉쳐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내걸고 체육회를 탄생시켰지.

H형, 나의의지는 모르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지상을 통하여서도느꼈을거야.

76년 몬트리얼올림픽 당시, 김대사와 김참사의 냉대는 울분을 갖게했지.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은나를 대형 태극기 흔들고 달뛰게 했지.

H형 그순간만은 온 우리 한민족이 하나로 뭉친 마음으로 열광했을거야. 나의 소년시절의 꿈이 금메달이었는데, 김택수 당시대한체육회장 김성집 사무총장 유한철 선생의 따뜻한 격려, 지금도 잊지못하오.

인준의 마무리를 못짓고 절룩발이가 되어 원영수씨에게 짐을 맡겼지. 초창기 공식석상에서 가정을 파괴한 절룩발은 리더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내자신이 못박았기 때문에야.

그후 한병기 대사가 부임해서 토론토의 힐튼호텔에 왔을때 5분대화의 약속이 두시간으로 변했어. H형 사담중 체육회 인준을 속시원히 받아들이더군.

김대중씨에 대한 화제가 올랐어 한대사왈, 자신이김대중이라도 그길밖에 걸을 수 없다고, 덩치는 작아도 그릇은 크더군. 내가 반했지.

H형이 알다시피 이놈은 천태만상의 선배, 후배, 그리고 친지들을 많이 대하고있어. 이민사를 돋 보이게 하거나 얼룩지게 한 사람들도 말이야.

H형 지상에 알려진것중 아픈것만을 나열하겠어.

H형, D식품이나 P식품에 많은 신세를 지고있는 나자신이야. 지상을 통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일본식품 업체의 농간인지도모르고 말이야. 이제 그만들 했으면 좋겠어.

H형, 얼마전 오기송씨의 삼일절을 북미교포의 날로 운운…을 읽었소.

H형, 고려의 신불, 배유차상, 이조의 배불사상이당파와 파벌로 낙인받은 우리민족이 삼일절만은 왜놈의 앞잡이 극소수만을 빼고, 온 우리 한민족이 제일 크게 뭉쳤던 고유명사를오기송씨는 잘못 생각했던것 같애.

H형, TTC에 걸려든이, 최, 조, 벌을받고 새사람이 되어나오는 이들에게 교민들이 따뜻하게 감싸줬으면 좋겠어.

H형 냉대와 멸시는 제2 제3을 만드니까 말이야. 암살음모의 혐의를 받고있는 문군, C군, 이 모두가 친지이고 아끼는 동생들이야. 참으로 마음이 아파

H형, 알다시피 이놈은젊어서 의리와 인정앞에는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지만 불의와 금전앞에는 예리한 도전뿐이었어. 그래서 가난한지 모르지만 말이야. 하물며 부가지간에 발맹하려는것을 지상을 통하여보고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어.

H형, 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밀만한 인물들이라고는 볼 수 없어 단순히 노랑머리들한테 이용당한것으로보아 약하고 분열된민족의 서러움을 다시 실감했소.

H형, 신문장이들은 어땠는줄 알어? 한민족의 수치를 각신문이 살판났다고대서특필해, 그것도 몇단기사로 말이야. 그렇게해서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하면결과는 교포호주머니 털어다 노랑머리에게 돈과 민족을 주고, 수치를 사는꼴이 되고말아

H형, 내가 분명히 지적해둘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보다도 더 반공국가로 뿌리가 박혀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야. 그러나 모든 것은 캐나다 수사관들이 잘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다 무어라 하지 말고, 감정, 너무한 실리추구, 사상과 이념, 반정부, 남쪽과북쪽 그리고 6 천만 민족이 갖고 있는 6 천만개의 개인철학,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한민족이 뭉치자로 승로전 하나만을 내걸고,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게끔 연일 신문을 아름다운 글로 채워지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냐고 기자양반들에게 묻고 싶어.

더우기 본국 정부의 전대통령이 가슴을 확 펴보이면서 남북회담을 제의했고, 판문점에서는 군사기밀인 '82 팀스프리트(한·미합동훈련) 작전에 이북을 참관케 초청한 자세에 H형, 우리는 해외에서나마 먼저 뭉치면 고국에 계신 부모형제들에게 " 어글리 코리언 " 소리를 듣지 않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소!

H형. 유목민과 상인과 선원으로 짬뽕된 노랑머리들 앞에 반만년의 고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뭉치어서 새재속에 우리 민족의 힘을 과시해야 되지 않겠소? H형만은 나의 심중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보리라고 생각하고 연필을 동지고 살아온 이 무식한 놈의 편지를 용서하오.

안녕 대신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 로 소리지르겠소.

초대 대한 체육회 캐나다 지부장 최성태 드림

막바지 추위, 강풍 엄습 2명 사망, 숱한 차사고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추위가 지난 3일부터 온타리오지역을 엄습, 2명의 목숨을 앗고, 많은 교통사고를 냈다.

5일 관상대는 "추위가 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차갑게 위로했다.

그때까지의 기온은 최저 영하5~10도에서 최고 영상10도 정도. 그러나 바람이 세어 4일 하오 토론토공항 근처의 풍속은 시속 97km(60마일)였다. 평균적으로 전체지역의 풍속은 56km(35마일)여서 영하25도의 추위를 느끼게 했다.

강풍과 함께 눈발이 뿌려 한때 토론토 서쪽 하이웨이401, 하이웨이11등이 교통이 두절되었다.

「파리」 거주 어네스트·맥도날드(19)군은 브랜포드 근처 하이웨이24에서 차사고를 일으켜 즉사하고, 2명의 탑승객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정거리는 거의 「제로」였다.

「스토니·크릭」 거주 노산·리블(46)씨는 「미퍼드」 근처에서 타고 가던 차가 굴러 사망했다.

「웃스톡」 근처 하이웨이 401에서는 70대의 차가 연쇄충돌 사고를 당했다.

테레비존선교방송 테레비존선교방송 테레비존선교방송 테레비존선교방송 테레비존선교방송 테레비존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T.V.선교방송1 주년기념선교집회초대

"교민여러분의 도움으로 날로 성장해가는TV선교방송. 생명의말씀은 이민생활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 일 : 4월25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Davenport Rd & Oakwood
강 사 : 곽 규 석 장로(일명 후라이보이)
"한국연예인교회시무장로"

지난 일년동안 본방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특히 본방송의 설립 과정에서 수고하신분들·제작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계신분들·프로그램을 위하여 말씀·음악·좌담·간증등 바쁘신중에 출연하여주신 모든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美,韓半島서 전쟁일어나면 20億弗상당 對韓武器 이양

韓·美國防장관 合意書에 서명 이미 많은軍備 한국에 비축

〈서울31일－ 〉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20억달러에 상당하는 무기와 탄약을 한국에 이양하기로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방한중인 와인버거미국방장관과 주영복국방장관이 31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와인버거장관은 서명을 마친뒤 이같은 결정은 북한에 대한「뚜렷한 신호」라고 평했다.

이틀간에 걸친 연례한미안보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와인버거장관은 『이 합의는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맺어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의 안보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미국측 전체계획의 일부분』이라면서 『비상서나 유사시 신속히 미국의 비축무기의 상당부분을 즉각 한국측에 이양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경우 한국측에 이양될 방어물자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 비축돼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무기및 탄약제조와 이의 제3세계에 대한 판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와인버거장관은 『이 문제는 케이스별로 처리돼야 하며 미국은 현재 실업률로 진통하고있다』고 말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기수출경쟁을 벌이는 것을 꺼려함을 시사했다. 그런데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려면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먼로魅惑 재현하는 加호스티스

美여배우 마릴린·먼로와 생김새와 태도가 흡사한 캐나다·퀘벡州 세인트·레오나드시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샤론·데·발(21)양. 【몬트리올(캐나다)—AP】

구경꾼 등쌀에 못이겨 찰스夫妻, 이사를 계획

〈런던－ 〉 대지 3백46에이커의 왕실저택에 살고있는 찰스왕자부부는 구경꾼들 등쌀에 못이겨 집을 옮기기위해 새집물색에 나서고 있다는것으로 31일 보도되었다.

찰스왕자부부는 로빈·후드 전설로 유명한 도시 노팅햄근처에 있는 침실26개짜리 맨션에 눈독을 드리고 약5백만달러를 내겠다고 말한것으로 데일리 미러 신문이 보도했다.

外換銀行 2百萬弗 증발사건 두父子범인에 有罪판결

브룩클린 美地方法院

〈뉴욕31일－ 〉 한국외환은행으로 가는 현금 2백만달러를 흑신혐의로 기소된 프랭크·마랄(45)과 그의 아들 알폰스(20)가 30일 브룩클린의 미지방법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금수송차의 수퍼바이저였던 프랭크와 알폰스는 지난11월10일 현금이 든 행낭을 바꿔치기했다 체포됐다.

이 판결로 프랭크는 최고 25년, 알폰스는 최고 5년형까지 받게된다. 이들에 대한 형량언도공판은 4월28일에 열린다.

폴랜드에 抵抗늘어

蘇聯국영주간지보도 계엄이후 43名 被殺

〈바르샤바, 폴랜드－ 〉 소련의 국영주간지 리터러리·가젯트는 31일 폴랜드에서 군사계엄령에 대한 저항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한 적어도 43명의 폴랜드인들이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혁명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가젯트지 보도에 의하면 반혁명분자들과 솔리대리티노조지하세력들은 작년 12월1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43명을 살해했다.

폴랜드정부관리들은 『이들로 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가젯트지는 또한 보도했다.

폴랜드 내무성당국은 43명의 사망자들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가젯트지 보도에 논평하는 것을 거절했다.

폴랜드경찰당국은 식량과 소비상품의 부족상태로 인해 암시장거래등 범죄사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軟禁상태의 바웬사 生後두달된 딸 첫相面

〈바르샤바－ 〉 연금중인 폴랜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지난주말 생후2개월된 딸을 처음으로 만났다.

바웬사의 부인 다누타는 31일 남편을 면회한후 『두달밖에 안된 아기를 데리고 그단스크에서 바르샤바까지 1백40마일을 여행한 것을 남편은 나무랐다』고 말했다.

작년 12월13일 이후 연금상태에 있는 바웬사는 운동부족으로 체중이 늘었다고 부인이 전했다.

한 국 일 보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㉗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런 자학적인 말을 이젠 하지않기로 하지 않았는가? 나도 외로운 사람이야. 생각해봐 이땅에 내부모 형제가있나, 친구들이있나를…. 자네가 나보고 "중국놈신부 라고 경멸했듯이 이 고장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든 신부로써 일해야할 나를 자네는 이해해주게나.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부탁하네."

"다시는 당신보고 중국놈신부라고 하지 않겠네. 용서해 주게."

"우리들 사이엔 이미 용서하고 못할것이 하나도없는 이해와 존경만이 있는 좋은 친굴세. 자 그럼 난이제 실례하겠네. 앞으로 종종 찾아와 술 한잔 하겠네, 그런데, 아참, 오늘 우리의 술시합 결과는 어떻게됐지? 누가승리했다고 자네는 생각하나?"

"이번에는 둘다 불승패야. 승자도 패자도없어. 다음기회에 다시 술시합 하기로 하세. 어때, 이번 토요일 저녁에?"

"좋아. 그럼 토요일 저녁에 다시만나세."

"그날 내 아내 수잔의요리솜씨도 선보이겠네. 그리고 술배를 단단히 준비하고오게. 술은 마실만큼 충분히 준비해 둘테니까."

"좋아 그럼 토요일오후6시 정각에 다시오겠네."

부리노는 투써에대한 슬픔도 고통도 잊은듯 명랑해 졌다. 우리는 형제처럼 다정하게 엉부라스하고 헤어졌다.

사제관에 돌아오자 나는 소성당 기도실에 들러 성체조배하며 주님께 인사드렸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없었던들 저는 오늘 부리노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오야 사목전선에 처음 나선 보좌신부로서 겪은 사건치고는 큰 것이었는데 일을잘 처리했다고생각한다. 수고했다."

"좋게 평가해 주시니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부리노의 회심을위한 노력만은 저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와나눈 쌍말과폭주는 매우 죄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쌍말솜씨와 술마시는품에 나도 다소 놀랐다마는 오늘나는 그러한 너와함께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신부로서 처음겪은 부리노의 사건이 뭔가 신부로서의 제 장래를 말해주는것같아 한편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항상 너와함께 있을텐데 뭣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냐?"

인자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엄하게 들리는 것같았다.

"복음성경 말씀대로 이우주 전체보다 더 귀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젊은군인 돌끼리나 지껄이는 그러한 속된말과 술시합을 통해보좌신부로서의 사목생활을 시작했으니 마음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럼 네주재에 뭣을 바랐단 말이냐?"

"냉담중인 젊은지성인이나, 아니면 사랑의 고통 속에 절망하고있는 한 어여쁜 여인을 돕는일로 보좌신부생활을 스타트 했더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읍니까. 그리고 신부로서의 제 장래를 멋지게 상상해볼것입니다."

"태오야, 오늘 너는 너로서 할수있는 최선의것을해냈단다. 그런데 뭣이 마음에 걸리고 또 뭣이 멋지단 말이냐? 아직도 너는 인간적인 기분을 사제적 사명의식보다 더중히 여기고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읍니다. 하지만…"

"잠깐만 태오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젊은 지성인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지도해줄 신부는 이세상 어디에나있다. 그러나 부리노를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복음15장의그 탕자처럼 부리노가 내집을 떠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그런데나날이 타락해가는 그의영혼을 도맡아 지도해줄 신부는 여지껏 한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를 20여년간 기다리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나는너를 20여년간 기다리고 있은셈이다."

"저를 기다려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제가배운 그 속된말과 술이 부리노의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십니까?"

"또 빈정거리기냐? 부리노를 위해 오늘네가 지불한 수고를 인정해서 더 이상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다만 오는 토요일 저녁식사때 너는다시 부리노와대결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는 주의만을 네게준다."

"염려마십시오. 「아스랑고지」는 이미 무너졌읍니다. 그날 저녁에도 쌍말이나 지껄이고, 술이나 퍼마시면 될것인데요 뭐."

나는 일종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항의라도하듯 주님께 대들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주는나의 사랑의 충고다. 마태복음 12장의「되돌아온 악령」의 비유처럼 회심하기 시작한 부리노가 더 악하게 너를 대할지 모른다. 마귀의 본성은 질투니까말이다. 하지만 나 너와함께 있어주마."

"주님 겁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없어도 이제는 제 힘만으로 충분히 부리노를 회개시킬수 있읍니다."

"그건 교만이다. 교만은 신부의 가장큰 약점이 됨을 너는잊지 말아라. 오늘수고 많았다. 이젠 어서가서 쉬어라."

"주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주님 제말을 듣고 계십니까?"

"……"

(계속)

연예인들의
찬양과 간증의 밤
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5 : 17)

한국연예인교회
복음가수 허 림 집사
복음가수 전일용 집사

파란만장한 역경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과 넘치는 기쁨을 찾은 이들이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과 생생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일 시 : 4월16, 17일 저녁 8시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교회당

순복음카나다교회
1030 ALBION RD., REXDALE, ONT. M9V 1A7 (한국식품서부지점옆)
전화 : 교회 743-4813, 사택 745-3884 조이식 목사

점심특별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게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有事時 戰爭물자 한국移讓

韓美安保회의 폐막聲明 유엔司 平和유지 재확인

"核우산·早期警報태세 보강 南北對話 긴장완화에 同感"

수교1백주년을맞아 서울에서열린 제14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31일상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방위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폐막됐다. 이날 周永福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회의결과를 마무리짓는 1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경우 미국은 한국내에 비축하고있는 전쟁예비물자를 즉각이양한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양측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계속 보강할것을 확약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와인버거장관은 全斗煥대통령이 제의한 민족화합통일방안에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에서의 지속적평화를 보장하기위한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유엔군사령부가 평화유지기구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계속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은 협행 전시 재보급계획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전시소요물자의 사전비축을 공동으로 늘려간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방위산업시설을이용한 미군장비의 정비를 확대하는것을 비롯, 한국과의 방위산업협조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효율적운영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연합방위능력 향상을위해 조기경보력과 계속보강하고 전략정보의 교환을 확대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와인버거장관은 현재진행중인 미지상전투력 강화방안과 A10기및 F16기의 한국배치등 주한미군의 현대화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도이같은 계획이 계속추진될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체결된 전시예비물자의 이양협정은 미국정부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와맺은 협정으로 북괴의 기습남침이 있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징후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내에 비치하고있는 탄약과 유류, 통신기재등 병참·병기 물자를 수시간내에 자동적으로 한국정부에 넘겨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측은 내년도 (15차) 연례안보협의회의를 미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이날 하오 중부전선 ○○기지에서 벌어진 팀스피리트82 훈련장을 방문, 한미연합군의 화력시범을 참관했다.

◇全대통령이 관망대에서 팀스피리트82 火力示範훈련을 참관하고있다.

"韓美 연합훈련 世界자랑 水準"

全대통령, 팀스피리트 將兵격려

全斗煥대통령은 31일하오 京畿道 ○○기지에서 벌어진 팀스피리트82 火力示範훈련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가한 韓美軍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2시 헬리콥터편으로 ○○기지에 도착, 黃永時육군참모총장및 韓美연합사령관등 韓美 고위장성들의 안내로 관망대에 들어가 周永福, 와인버거 韓美국방장관등과 함께 작전지휘관으로부터 이날 공격훈련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뒤 약40분간에 걸쳐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관망대 부근 野營막사에 마련된 다과회에 참석, 약20분동안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조그마한 차질이 있어도 큰위험을 초래하는 복잡한 작전을 1件의 실수도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한것은 韓美양국군의 고도의기강과 훈련수준을 입증하는것』이라고 지적, 『韓美연합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언어장애가 따르는 聯合作戰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은 고도의 훈련과 긴밀한 협조의 결과』라고 말하고 『이것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있는 훈련수준』이라고 치하했다.

이에대해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을 통해보인 양국군의 긴밀한 협조에 큰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같은 양국군의 고도의기술, 전문성, 준비와 훈련을 레이건 대통령과 議會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다과회장을나와 부근에 전시된 신개발 韓國型 군용지프를 둘러본뒤 헬機편으로 서울로돌아왔다.

이날 다과회에는 丁來赫국회의장, 兪泰興대법원장, 李載瀅 民正黨대표위원, 金鍾哲국민당총재, 金義澤 民權黨총재등 정당대표, 金永先국회국방위원장과 尹錫敏 합참의장및軍首腦, 그리고 미국측에서 워커大使, 美태평양사령관과 美軍장성들이 참석했다.

"美와 계약한 쌀37만톤 國內반입않고 제3國에 再輸出추진"

高농수산

高建농수산장관은 『美國측과 도입키로한 37만톤을 국내반입을 하지않고 제3국에 바터무역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가있으나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추진하겠다』고말했다.

高장관은 또 2백40만톤의 도입계획은 농수산부가결정한후 경제기획원과 상의했으며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히고 일본으로부터 계약분 1백만톤중 67만5천톤만 도입케된것은 일본의 조작능력이 그정도밖에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83년도 미국쌀구매약속은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아르헨 反政示威 경찰發砲로 流血

【부에노스아이레스31日UPI·AFP=聯合】 중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30일 지난76년 군부쿠데타이래 최악의 소요사태가 발생,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 전국수개도시에서 수천명의 페론지지자들과 폭동진압경찰사이에 유혈충돌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2천여명이 체포되었으며 수십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천명의 페론지지자들이 『평화와 빵과 일자리』등을 요구하며 역사적인 데·마요광장의 정부청사쪽으로 행진하려다 소총과 곤봉으로 중무장하고 병력수송장갑차(APC)까지 동원한 수천명의 폭동진압경찰과 충돌, 노동자수명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부상했다.

노조지도자들은 이날 시위로 저명한 노조지도자들을포함, 적어도 1천명이 체포됐으며 이를취재하던 사진기자 3명이 구타당한후 구금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서쪽 1천94킬로미터의 멘도자에서도 약 5백명의 페론지지자들이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행진을 벌이다 급거출동한 폭동진압경찰의 최루탄 살수포 세례를받고 해산했으며 6명이 중상을입었다.

인구 2천8백만명의 아르헨티나는 한때 남미의 경제중심지로 간주되기도 했었으나 현재는 높은 실업률…

몰타共和國에 祝電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31일 몰타공화국의 제2회 國慶日을 맞아 부티기그대통령에게 祝電을 보냈다.

溫陽·公州등 市추진

權民正총장 大田圈종합開發 적극모색

【扶餘=黃昭雄기자】 權正達民正黨 사무총장은 31일『인구 5만이상인 忠南 溫陽·公州·大川등 조건을갖춘 지역이 市로 승격될수 있도록 黨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忠南지역 당원 현지교육순시를위해 扶餘에들른 權총장은 이날상오『서울·公州·扶餘및 全北 益山을잇는 중서부 古都文化圈 개발과 大田圈 종합개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首都圈 인구분산을위해서도 大田을 국토의 중심지로개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敬老優待制에 관해 지방이 서울보다 오히려 경로우대제가 잘 시행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버스조합이나 業主에대해 경고를 하는등 버스敬老우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權총장은 국회經科委의 外米도입小麥활동에 관해 『늦어도 금주중으로 끝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그간의 小麥활동과 쌀도입과정에 부정이 없는것으로 밝혀진만큼 小麥활동이 끝나는대로 국민에게 확실히 이해시킬수있도록 그全貌를 밝혀야 할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또 外米도입파문과 관련, 『쌀을 가지고 농간을부리는 미국의 米穀巨商들이 다시는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면서 『民正黨은 이 사건을 계기로 主穀의 自給을 실현하기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美이민 비자手數料 오늘부터 1百弗로

미국으로 移民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비자발급 手數料가 4월1일부터 1백달러로 인상된다.

미국移民비자수수료가 현행 25달러에서 3백%나 오른 1백달러로 인상된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관계자는 31일 『현행25달러는 지난 52년에 책정된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 현실화 시킨것』이라고 말했다.

諮問委員 66명위촉 統一院

국토통일원은 31일 韓英哲교수(明知大·간사) 朴東雲씨 (한국일보논설위원) 李東馥씨 (三星그룹)등 66명을 82년도 정책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통일원은 이들 정책자문위원들로 북한분과위원회등 5개분과위원회를 구성, 이날발표했다.

北傀 玄峻極 日, 入國거부

【東京31日=宋孝彬특파원】 사쿠라우찌일본외상은 31일 衆議院외무위원회에서 北·朝민간어업협정개정교섭단장으로서 訪日을 희망하는 北傀의 玄峻極외교문화연락협회부위원장의입국비자발급은 곤란하다고공식표명했다.

玄峻極은 6월말로 기간이 끝나는 일본과 북괴간의 민간어업협정 개정을 위해 訪日하고 싶다는 의향과함께 비자발급을 신청했었다.

외무성의 기무찌(木內)아시아국장은 이날 외무위에서 『玄은 작년 일본을 방문했을때 정치활동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全斗煥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금융·保險業도 「公正거래」대상

韓鳳洙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31일 독과점 대기업의 횡포나 담합, 소수 재벌에의 기업집중에 대한 정부의 지금까지 규제나 감시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들 대기업의 남용·공동행위에대한 시장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법적으로 규제할수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통해 韓위원장은 이미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위해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규제기준을 마련중에있으며 기업의 수평, 수직결합외에 우리나라재벌의 異業種경제력집중을 낳아온 이른바 문어발식 기업결합도 규제할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작업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율화추이에 맞춰 금융, 보험업을 공정거래법적용대상에포함, 다수금융거래자나 보험가입자 피해를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막을수 있는방안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독과점기업의 횡포는 일벌백계로 엄중히다스려 공정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는한편 공정거래 행정요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에 노력하고 정부가 앞장서는 각종경쟁 제한법령이나 행정관행도 단계적으로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美·中共관계 重大시련에

"臺灣에 무기販賣강행"

美、6千萬弗 法案 곧 議會제출

【北京·워싱턴31日UPI=聯合】 美·中共관계는 미국이 중공측의 완강한 반대입장을 묵살, 6천만달러상당의 對臺灣군사부품판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굳힌것으로 30일 전해짐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北京의 서방외교관들은 31일 미국의 對臺灣군사판매가 공식화될 경우 미·중공외교관계는 대대사급으로의 격하가 불가피하며 그 시기는 수주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워싱턴의 미관리들은 30일 레이건 미행정부는 6천만달러에 달하는 對대만군사부품판매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한 이들 미행정부관리들은 이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고 전제, 對중공관계에 얼마간의 손상을 각오하고서라도 臺灣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北京의 노련한 한 서방외교관은 31일 『이제 때가 왔다. 對대만무기판매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되는등 거래가 일단 공식화되면 여태까지 나온 중공의 對美경고는 허풍이 아닌 사실로 나타날것』이라고 강조했다.

北京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6천만달러 對대만무기판매가 미국의 對대만군사지원과 관련, 중공이 공언해온 對美외교관계 격하 위협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6천만 달러 무기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며 이에관한 법안이 4월중순께는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共, 臺灣동등待遇 美移民정책에 항의

【北京30日UPI=聯合】 레이건 대통령의 新대만입장과 對대만무기판매계획에 불만을 갖고있는 중공은 30일 중공과 대만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미국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공식외교각서를 北京주재美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발표, 불편한 對美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새로운조짐을 보였다.

戰艦뉴저지號 極東취역고려

【뉴욕31日=金泰雄특파원】 미국정부는 극동해역의 전투력보강을위해 재취역시킬 전함 뉴저지號를 西太平洋해역에 배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즈紙가 30일보도했다.

뉴저지號는 美해군이 재취역을 검토하고있는 4척의전함중 하나이다.

放火, 反美아닌脫線

훌드리지 議會證言

【워싱턴30日=聯合】 존·훌드리지美국무성 東아시아 太平洋담당차관보는 30일 北韓이 아마도 멀지않아 『평화적 협상대상』으로서의 한국의 존재를 인정할수밖에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훌드리지차관보는 이날 83회계연도 對外원조법안을 심의중인 下院세출위원회 정부활동소위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그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釜山의 美문화원 방화사건에도 언급, 이것이 反美주의의 양상을띠었다기보다는 하나의 『탈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훌드리지 차관보는 이방화사건에대해 釜山시민은 물론 전한국민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갖고 있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오늘「萬愚節」…

地平線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하리오―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말이다. 성서에 39번이나 나오는 소금은 인류생활에 필수 불가결의 물질이지만 그 특색의 하나가 대용품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것이 소금이기도 하고 제일 맛없는것이 소금이라고도 한다.

한국인은 염분을 미국인보다 10배이상 음식에서 섭취하기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출혈,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경고가 미국의학협회와 미국식품의약국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보통사람의 하루 소금섭취 적정량은 2백㎎, 미국사람은 그 20배인 4천㎎을 먹고있다. 미국인구 4명중 한명꼴인 3천5백만명이 고혈압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니 한접시에 4천5백~6천㎎의 염분이 들어있는 김치를 겨우내 먹는 한국사람은 더할 얘기가 없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많이먹는 동양사람, 노동을 많이 하는 시골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쉽다. 소금을 덜먹는 미국에서조차 소금덜먹기 운동이 번져 식품에 염분함량과함께 『소금은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써붙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니 짜게 먹는 우리 농촌사람들을 생각하면 기가막힌다.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쌀밥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는 말이 한때 나돌았는데 쌀밥을 먹으면 짠 부식물을 많이 먹기때문에 잘못 전해졌던것이다. 駐越 韓國軍에서 염분이 몸에 모자라면 전장에 나간다고 食鹽錠까지 만들어 먹은것이 엊그제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염분과다섭취를 걱정하게 된것이다. ▼사람몸에 염분이 많으면 고혈압을 일으키지만 거꾸로 너무 적어도 몸무게가 줄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통증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기에 소금은 예부터 쌀과함께 생활필수품으로 귀중히 여겨왔다. 샐러리맨의 샐러리 語源이 라틴어로 바다나 소금물을 의미한 샐에서 나왔는가하면 로마시대의 군인=솔저는 소금으로 월급을 받기도했다. ▼우리의생활은 소금과 너무나도 가깝다. 간장, 고추장, 된장, 김장, 야채절임, 맛소금등 조미료에 쓰이는반면 비료, 의약품, 防腐劑, 工業용에도 많이 이용된다. 다만 너무 짜게먹는데 폐단이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제 잘살기위해서는 싱겁게 먹고 고혈압에 안걸리는체질을 만들기위해 소금적게 먹는 운동을 뒤늦게나마 벌일때가 온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8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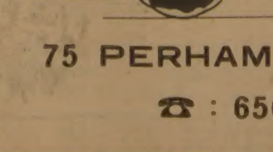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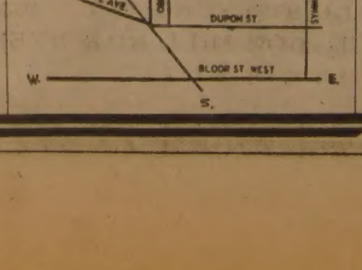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부실보상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Annette's Donuts Ltd.
=QUALITY·SERVICE, RELIABILITY=
◎도넛츠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온갖 종류의 도넛츠를 취급합니다.
● YEAST FILLED 종류
● YEAST RAISED 종류
● FANCIES 종류
● 각종 CAKE 종류
● 스페샬 JELLY FILLED CAKE 도넛츠 종류
● CRULLERS 종류
● MUFFINS 종류

75 PERHAM AVE. TOR.
☎ : 656-344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MRS. 전
☎ : 363-6077

對폴란드 추가制裁

EEC會談 폐막 4개外交政策 발표

美·유럽간의 協力강화

日의 市場開放도 촉구

【브뤼셀30日 AP=聯合】 歐共市(EEC) 10개국지도자들은 30일 ①아랍 점령 영토내에서의 이스라엘의 억압조치를 비난하고 ②폴란드 共産정권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를 경고하며 ③中美지원을 약속하고 ④터키의 인권위반에 우려를나타내는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고 2일의 EEC정상회담을 폐막했다。

EEC창설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정상회담에서 EEC지도자들은 외교정책선언을통해 또 미국과의관계강화의사를 표명하고 美·유럽간의 협의를 강화하기로다짐했다。이들10개국지도자들은농산물가격정책과 EEC 예산편성을 둘러싼 英·佛간의 의견이 대립된가운데 열린 이번정상회담에서 역내문제와 관련, 실업을 퇴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전체EEC 회원국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각국정부가업계및 노조의 지원아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경우에만경제위기가 극복될수있다고 지적했다。

域內문제에 관한 폐막성명은 또 일본에대해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국제경제 회복에 기여할수있는 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촉구했다。

이들 정상들은 그러나 域內문제의 책임의제였던 농산물가격과 예산문제에는 타협의 돌파구를발견하지못했다。

EEC정상들의 외교정책선언은아랍점령영토내에거주하는 아랍인들의自由와 權利를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억압조치가 中東의平和전망을 손상시킬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인권억압조치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했으며 폴란드사태가 東西긴장의 요인으로 남아있어 유럽의 安保協力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라크軍 후퇴명령

후세인, 이란軍대공세壓力에 굴복

【베이루트30日 UPI=聯合】 사담·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은 30일 이란軍의 대공세압력에 밀려 지난18개월동안 이란軍과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이라크軍에 대해 戰線으로부터 후퇴토록 명령했다고 이라크통신(INA)이 보도했다。

이와때를 같이해 이란軍최고사령부는 이란軍이 후세인 대통령의 후퇴명령을 받은 이라크軍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일동안의 대공세에서 수스데즈풀 안디메스크를 탈환하고 이라크軍 2만5천명을 사살하는한편 다른 1만5천명을 부상시키거나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5개野黨 聯政움직임

"基民黨 執權위협"

【산살바도르31日 AP·UPI=聯合】 엘살바도르의 집권基民黨의 한 간부는 29일 극우정당인 공화국민동맹(ARENA)을 주축으로한 5개야당의 연정수립움직임으로 기민당의 집권가능성이 위협받고있다고 말하고 기민당이 새정부구성에서 배제될경우 엘살바도르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럼비아號 安着

화이트샌즈基地에

【화이트샌즈공군기지(美뉴멕시코州) AP=聯合】 일기불순으로 착륙이 하루연기되었던 美有人우주 왕복선 콜럼비아號는 ▲우주에서의 耐熱·耐寒실험 ▲식물및 곤충의 상태실험 ▲로보트팔의 화물운반실험등 각종 과학·기술실험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총 1백92시간동안 지구궤도를 1백29회 선회하는 最長비행기록을 세운뒤31일상오11시6분10초 뉴멕시코州의 화이트샌즈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의날」경축示威 30일西베이루트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국토의날』을 경축하기위한 시위속에서 춤을추고있다。【베이루트30日 AP電送=聯合】

英政街에 「젠킨즈」突風

힐헤드선거구서 社民黨후보로 壓勝

創黨 1년만에 「保守黨 牙城」무너뜨려

"84년 總選하면 執權한다" 輿論도 동조

◇의사당에 入城한 로이·젠킨즈。그의 정계복귀로 영국사민당(SDP)은 兩黨정치에 정면 도전할수 있게됐다。

76년 영국수상직을 놓고 노동당의 캘러헌 前수상과맞서 苦杯를 마셨던 로이·젠킨즈씨(61)가 지난주 글래스고의 힐헤드선거구 보궐선거에서 社民黨(SDP)후보로 압승, 화려하게 정치일선에 복귀했다。

그의압승은 한 거물급정치인의 정계복귀란 차원을넘어 창당 1년밖에안된 영국 사민당의 인기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당 집권당시 4차례나 각료를 역임한뒤 캘러헌 당수에맞서 수상자리를 노렸던 로이·젠킨즈씨는 작년에 사민당의 창당을 주도했다。

77년 유럽 공동시장(EEC) 위원회 위원장을맡아 잠시 정계를떠났던 젠킨즈씨는 사민당창당 1년전부터 새중도정당이 영국에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80년10월 마이클·푸트가 노동당당수에 취임 노동당이 급진적인 좌경색채를 띠게되고 마거리트·대처수상의 보수당정권이 높은 실업률과인플레로 표현되는 른바「英國病」을 치유하지못하자 젠킨즈의 주장은 사민당창당으로 실현되었다。

사민당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등 두정당이 이끌어오던 영국의 兩黨정치전통에 정면 도전하는 정치적모험이었다。

젠킨즈는 노동당내의 급진적인 좌경화에 반발해 사민당을 창당한 셜리·윌리엄즈 前교육상, 윌리엄·로저스前운수상, 데이비드·오웬前외상등 「新黨四人幇」의 리더格이었다。

이번 젠킨즈의 의원당선이 64년동안이나 보수당의 牙城이었던 힐헤드선거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처수상의 보수당정권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컸다。

사민당은이번선거의압승으로 셜리·윌리엄즈여사(51)가 작년말에 리버풀 보궐선거에서 압승한데이어 연거푸 경사를 맞아 승승장구의 무드를 타게됐다。

현재 영국각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당장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이 실시된다면 보수 노동 양대정당이 모두패배하고 사민당이 집권할것으로 점치고있다。

이경우 수상자리는 젠킨즈에게 돌아갈전망이 가장유력하다。

특히 젠킨즈에게는 영국최대의 군소정당인 자유당과긴밀한관계를 가지고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기위해서는 자유당과 聯政형성이 불가피할것이기 때문이다。

젠킨즈는 웨일즈지방의 가난한 광부아들로 태어나 노동당 입당 30년만에 대장상과 내상을 지낸 立志傳的 인물。

자신의 정치적뼈대를 굳혀온 노동당을 탈당했을때는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기도했다。

대처수상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한 영국총선은 84년에 실시된다。사민당은 이총선에서 자유당과 연합하여 집권을 노리고있다。

젠킨즈가 사민당의 지도자로 위치를 굳히고 활발한 원내활동을 통해 인기를 다져갈경우 영국정가는 「젠킨즈돌풍」에 휩싸일것으로보인다。【李炳圭기자】

메아리

콜럼비아 3往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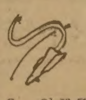
지구 궤도를 1백29회돌고 8일만에 宇宙왕복선 콜럼비아號는 기지로 돌아왔다。하루 지각한 셈이다。그러나 콜럼비아號의 탓이 아니라 着陸할 지점의 기후조건이 나빴다는데 탓이 있었다。

精密度 99·9999%는〈세븐·나인즈〉의 콜럼비아號는 인간을 처음 달에 실어날랐던 아폴로 우주선보다 10배나 더 정교하게 임무를 수행토록 만들어 졌었다。문득 서울의 공기 오염때문에 자기기록보다 몇10분이나 뒤지게 골인할수밖에 없었다고한 세계적 여자마라토너의 푸념이 생각난다。

콜럼비아號가 이번 비행중 수행했던 임무는 아홉가지 였다。거의가 과학적 실험이다。美우주항공국(NASA)의 宇宙科學국(OSS) 이름을딴〈OSS-1〉이란 이번실험중 네가지는 바로 우주의「環境汚染」에 대한 것이었다。

宇宙空間은 생각하는대로 완전한 眞空은 아니다。태양에서 날아온 電氣를 띤 미입자가 아주 적은 양이라하더라도 공간에 흩어져있고 이것이 프라즈마가 되어 가스상태로 일정하게 떠돌것이며 더러는 지구 磁氣의 영향을 받아 약한 磁場을 이루고있다。이속을 우주선이 지나면 이런우주의 환경은 심하게 교란을 당하게되는것이다。

또 우주선에서 새어나간 로키트연료나 물기등이 자연히 우주속에서 입자상태로 구름을 만들어 우주線이나 햇빛을 조금이라도 가리게 될것이므로 각종測定器에 영향을 줄것이 예상된다。콜럼비아號는 이런 여러가지 일로 생기는 환경오염을 로보트팔에 실험기구를 달아 바깥에 내밀어서 세밀히 조사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宇宙船은 또 無重力상태하에서 나방과 벌의 나는 모양을 관찰하였고, 생체세포의 분리실험, 식물木質素(리그닌)의 형성실험등 生命工學분야의 귀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그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콜럼비아號가 돌아온후 NASA측에서는 인공위성의 우주 配置나 回收, 우주선의 지정시간이상의 滯空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하였다。

〈세븐·나인즈〉의 정밀도를 만들어낸 인간의 지뇌는 우주에대해 한층 더〈自信感〉을 갖게되는것 같다。우주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앞으로 그환경을 더럽히지 않게끔 마음씀은 필요한일이다。더우기 우주공간에 까지 인류의 대립과 대결을 옮겨가서 아옹다옹하지 않도록, 그런「오염방지」도 지금부터 강구해나가는것이 필요하지않을까 여겨진다。

海外토픽

등돌린 姑婦간의 不和

간디 며느리 官邸떠나

【뉴델리30日 AP=聯合】 인디라·간디인도수상과 둘째며느리 마네카(25)가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충돌,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다。

마네카는 지난80년6월 항공기추락사고로 남편 산자이·간디를 잃고 수상관저에서 간디수상과 함께 살아왔다。

인도수상집안의 姑婦不和說은 산자이의 사망후 빈번히 나돌았었는데 며느리 마네카가 29일밤 짐을 싸들고 두살난 아들 바룬을 데리고 수상관저를 떠남으로써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주었다。

마네카가 간디수상집안을 떠난것은 그녀가 간디수상의 고향인 우터르프라데시주 러나우에서 28일열린 산자이추종자들의 금지된 집회에 참석, 개회사를 읽은데에 近因이 있으나 일부 관측통들은 고부간의 정치적알력이 밑바닥에 깔려있는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산자이의 사망후 간디수상의 강력한 보좌역으로 등장한 사람이 산자이의 형 라지브인데 마네카는 라지브와도 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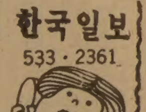
◇산자이 생존시 다정했던 간디여사와 며느리 마네카。

李肯珪회장 留任

한국記者협회

한국기자협회는 31일 하오2시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제1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李肯珪현회장(京鄕新聞심의부차장)을 유임시켰다。

부회장에는 李仲鎬(서울신문사회부) 洪誠浩(中央日報사회부) 尹漢重(KBS외신부차장) 金昆奎(전북신문사회부차장) 기자를, 감사에는 鄭炳雲(MBC사회부) 文重植(한국경제신문사회부) 기자를 각각 선임했다。



한국일보 533·2361

세계의 博物館

'5천년 中國' 縮圖

臺灣 故宮박물원

60萬점 한곳에…연구활동중점

자유중국의 故宮博物院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역사」란 바로 이런것이구나하는 감동을 받게된다。기와장한조각, 토기 한점에도 유구한 역사의 年輪이 떽떽히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故宮박물원에는 보통 평범한 박물관에서 볼수 없는 별의별 희한한 작품들 까지도 수두룩하게 전시돼 있다。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간신히 식별할 수 있는 상아로 된 작은 망루속에 한가롭게 바둑두고있는 신선모습을 새겨놓은 細工品이라든지 檀木나무뿌리로 된「老子騎牛」가 그 대표적인 예。

翡玉으로 만든 배추모양의 필통위에 여치한마리가 앙증맞게 앉아있다。배추와 여치가 조각된 翡玉의 배색이 기가 막히다。배추잎사귀는 벽옥다운 색을 띠고 있으며 몸기부분은 알맞게 흰색을 하고있는 것이다。흡사 싱싱한 배추위에 여치가 앉아있는것만 같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용광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만들어 낼수없는 예술품이다。관람객들은 故宮박물원에 한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런미술품들앞에서 입이 딱벌어져 버린다。

臺北市교외 陽明山남쪽에 위치한 故宮박물원은 대지만도 10만여평에 이르는 매머드박물관。세계 유명박물관의 하나일뿐 아니라 뒷산에 동굴을 파 문화재 보호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박물관 건물 뒤편 산속으로 길이 1백80m 폭3.6m 높이6m되는 두개의 터널을 뚫어 유물창고로 사용, 어떤 공습에도 끄떡없도록 되어있는것。

1949년의 마지막 國共전쟁때 중공은 地(대륙)를 얻었고, 국민정부는 天(정신문화)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天이란 바로 고궁박물원의 유물을 가리킨 것이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문화를 한눈에 살펴 볼수 있는 故宮博物院。

北京에 있던 故宮박물원이 臺灣으로 옮겨지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과정은 한편의 대하드라마를 연상케한다。故宮박물원의 맨처음 南遷은 1931년。당시 일본군의 대륙전화를 피하기위해 2만상자에 가까운 문화재를 上海로 옮겼고 1936년에는 확전에따라 다시 南京으로 옮기지 않을수 없었다。

이듬해에는 蘆溝橋사변으로 육운편을 이용, 陝西寶鷄→四川成都→峨嵋縣을 거쳐 重慶에 옮겼으며 수우편으로는 南京→長江→重慶으로 대이동을했다。이때 일부 유물상자는 長沙와 港口로분산되기도 했다。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끈국민정부는 1947년 重慶에 피난시킨 문화재, 전부를 정부군을 따라 南京으로 옮겼다。1949년 겨울에 대륙의 전도를 중공의 손에 빼앗긴 국민정부는 최후로 문화재를 해군함에 싣고 臺灣基隆항으로 긴급피난시키기에 이르렀다。

해군함정으로 3차례에 걸쳐 옮긴 중요유물은 故宮박물원을 비롯하여 중앙박물원 중앙도서관 북평도서관등에 소장돼 있었다。臺灣으로 이때 옮겨진 문화재는 모두 4천4백86상자。현재의 박물관건물을 지어 일반에 공개한 것은 1965년부터였다。

故宮박물원은 중국의 문화를 한눈에 볼수있도록 구비한 전시실에 곁들여 각종 확대사진 도표 제작재료와 비디오TV를 갖춘 소형강당을 마련,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있는게 특색。

瓷器窯의 경우도 유물전시회에 각종 유약처리의 색도사진 역대 무역자기의 수출지도 고대가마의 복원투시도등을 시설해놓았다。이밖에 서화복원실 도자기와 슬라이드제작 복제표구를 마련하고있으며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를 비롯 영어 불어 독어 일어등을 사용하는 안내원을 두고있다。

故宮박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뿐아니라 전문연구직을 많이 두어 연구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점。

故宮박물원은 60여만점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면서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후세에까지 보여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것같다。

文化短信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에 金文姬씨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30일 26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재에 金文姬씨(사진·龍門高교장), 부총재에 박문희·유명숙씨를 각각 선출했다。이날 물러난 楊順淡씨는 지난15년간 총재직에 있었다。

基督敎과학 강연회

기독교과학서울교회는 1일하오7시 신혼예식장 신관1층홀에서 기독교과학 치료의 논리적 확실성이란 제목의 강연회를 갖는다。연사는 미국 보스턴에있는 기독교과학모교회 강연부 위원인 유진·피츠워터씨。

老人대학 졸업식

천주교노인대학 합동졸업식이 1일하오1시30분 明洞대성당에서 金壽煥추기경의 집전으로 열린다。천주교노인대학은 그동안 본당단위로 개설해오다가 작년부터 연합회를 구성, 올해 첫합동졸업식을 갖게된것이다。

文藝회관 대극장서

극단「뿌리」는 제29회 공연으로 具常작金道勳연출「黃眞伊」를 8일~14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공연시간은 하오4시·7시。

시인 具常씨가 여류시인黃眞伊의 문학과 내면 세계를 실존적 시각에서 해석한작품。TV브라운관에서 떠난 張美姬가 새로운 모습 당당한 연기력으로 타이틀·롤인 黃眞伊역을, 저력있는 연극배우인 鄭東煥이 이사종역을맡아 열연한다。그외 黃圭彬·卜鎬五·李鍾城·韓多海·李春鎭등출연。

한국일보 詩壇

봄

金小葉

손톱 끝 봉숭아가
다 흩었는가 했더니
흰 눈속 작은 씨앗이
꿈틀거리네。

겨우내 잠자던
사랑의 불씨
태양의 눈빛으로
연록의 문을 여네。

연분홍 마음 하나
가슴에 날아와
춤을 추어서
액자에 담아
봄벽에 걸었네。

그림에 걸린 꽃밭,
이제는 언덕에 올라
쳐다만 볼 뿐인데
향기는 가득 넘쳐오네。

流星의 賦 <347>

李炳注作　李友範畵

孤獨한 英雄 ②

『어떻게 졸렬한지 말을 해 보게나』

계남이 굳은 표정이되었다。하룡이 상사를 욕할땐 범연한 이유로서가 아닐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어제의 패전은 한순찰사와 신 방어사의 경솔한 작전에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김명원이란 도원수가 있는데 어째서 한과 신이 작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평양을 떠날 때 한 순찰사는 상감으로부터 김명원 도원수의 절제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분부를 받았읍니다』

『그것 무슨 말인가。한곳에서 싸우는데 비록 순찰사라고 할망정 도원수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면 명령이 두갈래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 하옵니다。그러니 상감으로부터 그런 교지를 받았다고 해도 전쟁에 임해선 도원수의 명령에 좇아야 하는 것이어늘 한응인은 신 방어사의 말을 듣고 졸렬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읍니다』

『그 졸렬한 명령이란게 뭔가』

『적은 대군(大軍)으로 이곳까지 몰려 왔으나 배가 없어 도강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투전의 상황이었읍니다。적은 이리 저리 도강준비를하다가 사세가 여의치 않는 것을 알자 강변에 구축했던 진지를 헐어버리고 군기(軍器)등을 챙겨 어디론지 가버렸읍니다。분명히 계교를 꾸민거죠。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죠。그런데 신 방어사가 적이 기진맥진하여 도망 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그래 지금 도강하여 적을 치면 적을 일거에 무찌를수 있다며 도강을 주장한 겁니다。

이때 조방장 유극량이 반대했읍니다。적이 기진맥진했을 까닭이 없고 필시 계교에 의한 후퇴일것이니 상황을 좀더 냉철하게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읍니다。그랬더니 신 방어사는 유극량에게 비겁자라고 욕설을 퍼붓고 뺨뜻이 칼집에 손을 대기까지 했읍니다。유극량조방장은 나는 죽음을 겁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대사를 그릇칠까봐 반대하는 것이라며 분연 자기의 진중으로 돌아갔읍니다。김명원 도원수도 유극량 조방장과 같은 의견이었는데 한응인 순찰사가 신 방어사의 말이 옳다고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도강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작전의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선발대가 건너가서 남아 있는 진지를 습격하자 적들이 도망을 쳤죠。그걸 본 대부대가 일제히 강을 건넜는데 땅에서 솟아오른듯 복병(伏兵)이 구름떼처럼 아군에 쇄도해 온것입니다。이편에서 태세를 갖추기 전에 말입니다。그건 이미 전쟁도 아니었읍니다。벌리고있는 호랑이 아가리에 이편에서 머리를 쑤셔 넣은 꼴이었죠。세상에 이런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래 그후의 상황은?』

『한응인, 김명원등은 도망쳐 버렸죠。그들은 건너오지도 않았으니까요。건너온 장수와 군사는 몰살되다시피 했읍니다。왜놈의 총 칼에 맞아 죽지 않은놈은 물에 빠져 죽었죠。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들만 살아남았읍니다』

『전사한 장수는 누구누군가』

『독진관 홍봉상이 죽었고, 신 방어사도 죽었고, 그리고 유극량 조방장도 죽었읍니다』

『유극량 조방장이?』

하고 윤계남이 화석(化石)처럼 되었다。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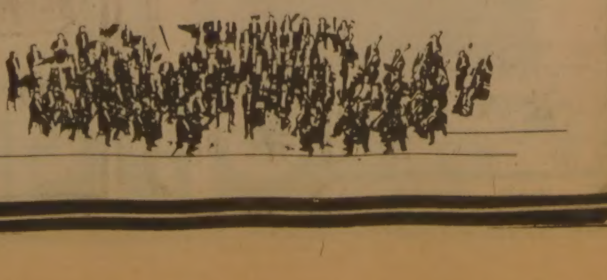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한국일보 특집판

5大洋6大洲가 함께…4만6천명의 地球가족

駐韓外國人 오늘의 實相 <1>

開化期는 「宣敎」、지금은 비즈니스로
손님접대 잘해 "外國人의 天國" 評도
작년訪韓94萬…올림픽前後 절정예상

「隱者의 나라」에서 開放사회로 變遷 百여年

바야흐로 국제화시대가 전개되고있다。지난 60년대후반부터 조심스럽게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온 한국경제는 80년대들어 국제화、개방체제화의 마무리작업을 서두르고있다。비단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다。정치、사회、문화、스포츠…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지고있다。아마 88년 서울올림픽은 국제화의 완성을 고하는 이벤트로 기록될것이 틀림없다。

이제 한국인、한국상품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다。한국인의 대외진출에 정비례해서 외국인의 한국진출이 늘어나고 있다。81년말 현재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4만6천1백92명(60일 이상 장기체류자)。그리고 81년 한해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93만9천9백55명에 달한다。

이렇듯 외국인·외국문물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고있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것은 불과 1백년 남짓。開港(1876년)과 더불어 굳게닫혔던 쇄국의 문이 열리면서 낯선 이방인들이 무리지어 몰려들기 시작했다。물론 개항이전에도 조공사절단이나 일반상거래를 목적으로 왕래하는 상인은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장기체류자)으로 볼수는 없었다。

더구나 선교목적으로 은밀하게 입국한 가톨릭신부들은 당시 정부의 박해때문에 그경체를 파악할길이없다。쇄국의 문이 워낙 굳게 잠겨있었기때문에 외국인들은 隱者의 나라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개항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주거지를 마련한 최초의 외국인은 對馬島출신의 일본상인 大池忠助였다。그는 개항에 한발앞서 75년 釜山에건너와 해산물무역에 종사하는 한편 잡화상과 정미공장을 경영해왔다。

일본인들은 이때부터 은밀한방법으로 한국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1년후 개항당시 釜山에 거류하고있는 일본인은 40여호에 80여명을헤아리게되었는데 공관관리및 잡직자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인대금업자였다。이어 1876년에는 상인과 대금업자의 뒤를 봐주기위해 사설 第一銀行이 부산에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2년뒤에는 국립제일은행이 상륙하여 한국침략의 경제적기반을 다져나갔다。

일본인에 뒤이어 중국인이 밀려들었다。1882년 壬午군란으로 독립당에 정권을 빼앗긴 閔妃는 淸國光緖帝에게 원군을 요청했다。光緖帝는 廣東수사 吳長慶제독과 휘하장졸5천명을 파병、군관을 진압하고 閔妃의 실권을 되찾아주었다。이사건을 계기로 吳長慶은 내정간섭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山東縣의 중국인들이몰려와 한국華僑의 터전을 닦기시작했다。

1880년대에 들어서는 서양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仁川은 釜山과 달라서 淸國을 위시하여 美·英·獨·佛등 서구상선의 기항및상선의 출입이 잦았다。仁川이 개항된 1883년 독일 함부르크의 상인 에드워드·마이어는 仁川에 世昌洋行을 설립했다。

이어 1884년 7월에는 미국인 선교사 호렌스·N·앨런이 들어왔다。그는 갑신정변때 칼맞은 閔泳翊을 치료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고종황제의전의가되었으며 8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병원인 廣惠院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의 세브란스병원으로발전했다。앨런보다 한발짝 뒤늦게미국상인 W·D·타운센트는 仁川에 타운센트상회를 설립했고 85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땅을 밟았다。또 90년대들어서는 영국인 W·G·베네트가 인천에 廣昌洋行을 세웠다。

한편 서울의 開市는 開港으로부터 6년뒤인 1882년에야 이루어졌다。이때까지만해도 외국인은 서울4대문안에서는 살수도 없을뿐아니라 공무가 아니고서는 성안에 발을 들여놓을수도 없었다。그때문에 최초의 외국공관인 일본공사관은 西大門밖淸水館에 자리잡았다。그러나 開市를 계기로 일본공사 花房義質은 문안으로 공관을 옮겼고 1885년께부터는 日本상인들이 南山산록에 자리잡고 한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트기시작했다。

1880년께에는 진고개일대에 70여호의 일본상점이 들어서 일본타운을 건설했고 일본상인의 세력은 날이갈수록 확장되어 나갔다。

이에대해 淸商은 水標橋와 南大門일대에 자리잡았으며 1885년께에는 이미 3백여호를 헤아리게 되었다。이처럼 서울의 상계에서 淸商이 日商보다번영을 누린것은중국민족유의성실과근면그리고천재적商才때문이었다。

또 吳長慶이 죽자 뒤이어 들어온 袁世凱는 오늘의 중국대사관 부근에 자리잡고 정가를 호령했는데 이때부터『정계에선 袁世凱、商界에선 同順泰』라는말이 생겼다。화교는 淸日전쟁후 패전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한국에 남은사람까지 가세되어 날이갈수록 부풀어갔다。

이처럼 개화기에 진출한 日本人과 중국인들이 한국의상계에서 각축을벌이고있는사이 서구계의 외국인들은주로 의료·교육·선교활동등에 종사했다。따라서 개화기의 외국인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양대산맥을 이루었다。그러나 淸日전쟁、露日전쟁에이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인과중국인의 세력균형은 점차 日本人쪽에 유리하게 돌아갔다。마침내 일본은 1904년 화폐개혁을 단행、한국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日本의 상인들은 무리지어 한국에 몰려들었다。韓日합병당시에는 羅南과龍山에 각1개사단의 육군을 상주시켰고 그밖에 헌병 2천19명、경찰 5천6백93명이 상주했다。경제적으로는 산업·상업을 장악한데 이어 토지분야에까지 침투해 들어갔다。예컨대 한일합병직후인 1911년 한국에 설립된 공장(종업원10인이상)은 모두 2백70개였는데 그중 민족계는 3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日本系였다。

또 일본인은 농업부문에도 무리지어 몰려들기시작했는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日人농지소유자가 6만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합병기간중의 日人은 이미 외국인이 아니었다。그들은 지배자였고 수탈자였다。더구나 31년 萬寶山사건、37년 中日전쟁이 발발하고부터는 일본의 압제와통제、그리고 식량난에 시달려 在韓화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한때 10만을넘던 화교가 10분의1로 줄어들었다。해방당시 화교가 경영하던 업소는 음식점을 포함해서 모두 2백25개소。전쟁기간중 파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8·15해방과 더불어 사태는 다시 일전했다。그토록 요란하던 나막신소리가 뚝 그치고 들끓던 日本人은 10년후에 다시보자는 한마디 말을 남긴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그대신 美軍의 진주와 더불어 미국인 선교사·군속·기타 구호기관의 요원들의 방문이 늘어났다。

정크무역선을타고 중국인이 다시 상륙했다。해방후의 주한외국인은 중국인과 미국인이 주류를 이루었다。굳이 日本人을 헤아린다면 종전이전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온 1천5백여명의 在韓일본인부인들—한국화한 일본인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6·25사변과 더불어 외국인의 분포는 다시 바뀌었다。서구계 외국민간인은 거의철수하고 중국화교는 3백여명의 특공대를 조직、반공일선에 나서기도했다。그후 휴전과 더불어 다시 미국인 선교사와 각급구호기관의 요원들이 늘어났다。그러나 50년대말까지 외국인의 발길은 뜸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눈에띄게 늘어나기 시작한것은 60년대 들어서부터。먼저 日本人의 방문이 늘어났다。4·19이후 관리 기자 문화인 기술자 상인등 갖가지 이름으로 은밀히 우리나라를 찾기시작했고 5·16이후 韓日국교정상화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한국을 찾는 日本人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韓日 국교정상화 직전인 64년중 한국을 다녀간 日本人의수는 1천7백58명。멀리사라졌던 일본인의 말소리가 다시금 우리의 귓전에 스며들기시작했다。

美國人의 진출도 60년대들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시작했다。61년 한국나이롱과 美國의 캠텍스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고 뒤이어 油公과 걸프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기업인·기술자·상인들의 발길이 빈번해졌다。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이 강행되면서 한국경제는 서서히 개방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비즈니스·베이스의 외국인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韓日국교정상화 이후 日本자본의對韓진출러시에 실려 日本人의 방문이 크게 늘어났다。73년에는 45만1천7백명의 日本人이 한국을 방문、해방이래 최대의 일본인러시를이루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경기의 향배에 따라 약간씩 증감한다。경제활동이활발하던 78년중에는 외국인거주자가한때 5만을 넘기도했다。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지난10년동안 주한외국인은 4만5천명에서 5만명선을 오르내리고있다。

한국은 외국인의 천국이다。한국처럼 외국인이 대접받는곳도 없다。세계 도처에서『양키 고홈』이 터지지 않은곳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그런 외침을 들어보지 못했다。동남아를 휩쓴 日本人 배척운동도 한국에는 상륙하지 못했다。

日帝의 압제밑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온 한국인이지만 과거를 구실삼아 日本을 배척한 적이 없다。그러나 한국처럼 외국인의 이민이 어려운곳도없다。외국인의 이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않는 곳이 또 한국이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체제화가 진척되면서 주한외국인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朴炳潤차장】

駐韓외국 經濟團體

7個團體에 會員 7백20명

53年 美商議가 처음…70年代 크게늘어
日·英·西獨이어 아세안도 곧 등장할듯
直接 交易외 本國에 投資條件등 알선

경제단체의 면모를 명실공히 갖췄거나 그성격이 유사한것까지 포함시킬것같으면 현재 駐韓외국인경제단체는 7개에 달하고있다。규모면에서가장큰 駐韓美商工會議所가 있고 美經營봉사단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있다。지난해 韓獨商工會議所가 발족했고 올해들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벌이고있는 英國경제인들이 駐韓英國商工會議所를 결성했다。日本 경제단체가 가장많아 駐韓日本商工會를 포함、日本貿易振興公社서울사무소、日本商議서울투자 알선사무소등 3개가 있다。

우리경제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음을 실증이나 해 주듯 외국경제단체들도 꾸준히 증가해왔다。50년대초인 52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엔 외국경제단체라곤 단하나도 없었다。53년에 비로소 美商議가 탄생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최초의 외국경제단체였다。그후 65년까지 12년동안 美商議가 외국경제단체의 명맥을 유지해왔었을뿐 수출의 급신장、외국인투자업체의 증가에도 외국경제단체는생겨나지 않았다。66년들어 美경영봉사단(IESC)이 서울사무소를 열어 우리기업들의 경영자문에 응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67년에 駐韓日本商工會가 조직됐으며 같은해에 日本貿振公(JETRO)이 서울사무소를 개설、韓國시장을 조사、개척하고 경제정책및 무역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펴기 시작했다。日本商議가 서울에 투자알선사무소를 둔것도 이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외국경제단체결성 움직임이 없다가 80년대 들어 지난해 韓獨商議가 발족했으며 英國상사들도지난1월21일에 駐韓英國商議를 만들었다。지난해 수출이 2백억달러를 넘어서는등 우리경제규모의 확대와더불어 韓國에 진출하는 외국인 회사들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에따라 駐韓외국경제단체들도 늘어온 것이다。

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경제협력관계를 튼튼히 하고있는 美英西獨 日등이 경제단체를 조직했음을 엿볼수 있다。

이들 외국경제단체들의회원수도 이제는 적지않다。1월말현재 회원수는 7백20명(회사회원포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駐韓美商議가 4백73명(회사회원1백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비록 역사는 짧지만 韓獨商議로 1백6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있다。日本商工會는 54개社를 회원으로하고 있으며 英國商議에는 3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美商議는 회원가입자격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는 편이다。美國회사나 개인은 물론 韓國에 진출해 있는 회사나 기업인들은 모두 가입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다。특히 국내경제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商議 全經聯 貿協 中小企協등 경제4단체장에게는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日本商工會는 駐韓日本회사들만 가입할수 있도록 제한、다소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評을 받고있다。

그 명칭에서 느낄수 있듯이 韓獨商議는 駐韓西獨기업및 경제인이나 韓國회사 또는 경영자들을 회원대상으로하고 있으며 英商議는 주로 英國商事나 기업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韓獨商議의 경우 1백60명의 회원중 70%인 1백12명이 西獨회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회사중 비교적 지명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회사의 외국인 중역들이 현재 이들 경제단체를 이끌어 가고있다。韓國다우케미컬사장인 해거먼씨가 현재 駐韓美商議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워커駐韓美대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있다。예비역장군출신으로 지난 77년에 부임한 패드릭·C·크라우스씨가 상임부회장이다。

스위스지멘스社와 기술제휴社인 金星通信부사장 케루트씨(獨逸人)가 韓獨商議회장을 맡고있으며 원자력발전소5·6호기터빈제너레이터부문2차계통공사를 따바있는 英國GEC터빈社의 韓國지사장인 짐·카메론씨는 英國商議를 이끌어가고 있다。日本商工會는 미쓰비시韓國지점장인와끼·데쓰오씨가 회장이며 구시·마사오씨는 제트로 서울사무소장이다。

외국경제단체들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對韓經濟協力을 증진하는등의 일을 하고 있다。

美商議의 경우 산하에 19개전문分科委를 두어 韓國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공동관심사나 애로및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검토하여 自國 또는 韓國정부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요청을 한다。韓國에 투자를 희망하는 美國기업인이나 관료、정치인들에게 韓國의 투자환경 투자조건및 韓國의 경제현황및 전망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연간 70회정도의 조찬간담회도 가져 회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할수 있도록하고 駐韓美대사및 참모들과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회원소식이나 韓國經濟동향을 알려주는『뉴스레터』『저널』등 간행물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있다。지난1월30일에는 韓美修交 1백주년 기념을 겸한 신임회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만찬회및 무도회를 열기도했다。오는 5월중에는 韓美修交1백주년을기념、사진전시회등 각종행사를 벌일계획이다。

韓獨商議는 2개월에 한번씩 오찬간담회를 열고있으며 양국회원에대해 무역、관세등에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日本商工會는 회원들이 수시로모임을갖고 골프여행등을 즐기고있으며 경제및 문화에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지난해 全대통령의 아세안5개국순방을 계기로 최근들어 민간레벨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있다。60억달러經協문제도 잘해결될 전망이다。프랑스 캐나다 濠洲등의 나라와도 경제협력은 더욱 튼튼하게 다져져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앞으로 駐韓외국경제단체들은 점차 증가될것같다。또한 자본、기술교류등을통해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朴炅銀기자】

특집판

取材팀

경제부 朴炳潤 次長 / 崔相泰 次長대우 / 金基炅 기자 / 趙源永 기자 / 朴武 기자 / 朴炅銀 기자 / 林鍾乾 기자

정치부 金勝雄 기자

사회부 具用書 차장대우 / 金時福 기자 / 崔奎植 기자

문화부 李忠雨 차장

사진부 朴泰弘 기자 / 鄭在斗 기자

豫告

② =外國人의 한국生活과 學校·華僑

③ =駐韓 外國銀行·外國商社의 實態

④ =外人村르포·한국企業속의 外國人

봄철스페샬대매출

REG. $1495 SPEC. $1095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REMOTE CONTROL 포함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HWY401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中古車거래 3년째 긴장

實感景氣

79년 오일쇼크로 결정적타격
하루거래1百臺…70~80%小型
登錄税완화등 뒷받침 아쉬워

◇李甲善씨는 賣物홍수속에 거래는한산,중고차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거래에 프리미엄이 붙던 시대는 지났읍니다. 지난79년상반기까지만해도 승용차를 구하지못해 야단들이었어요。새차를 사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했지요。수십만원의 프리미엄까지붙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했읍니다。그만큼 자동차수요가 많았다는 뜻이지요。그래서 중고차시장도 호황을 누렸구요。하루 2백여대가 거래됐고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읍니다。값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고 수입도 괜찮았는데…』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중고차매매거래 중개업을 하고있는 李甲善씨(漢昌자동차대표)는 그때 같은 호경기가 다시는 올것같지않다는 아쉬운 표정。

李씨의 말처럼 중고자동차시장은 79년가을 제2차오일쇼크와 더불어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다。중고차시장도 연3년동안 바닥권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하루평균 거래량은 1백대를 약간 웃돌정도。상당수의 매매중개회사들은 긴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연초에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가 싶더니 금새 주저앉고 말았어요。지난1~2월달에는 하루평균 1백50~1백60대정도가 매매됐었지요。자동차공업을 집중육성한다는 정부발표에다 공무원,국영기업체직원들의 직접운전권장,올해는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지지않겠냐는 전망등이 수요를 자극했기때문입니다。행락시즌인 봄철을맞아 수요가 다소 늘어나겠거니 기대했는데 3월들어 거래댓수는 하루 1백~1백20대로 오히려 줄고있어요』

李씨는 자동차시장이 성수기를 맞으면서도 긴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오너드라이버가 증가하는 추세에있지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도는 못된다고말한다。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크게 호전되면 모르겠지만 현추세를 보아서는 역시 큰기대를 걸수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원유값을내리고 이에따라 국내유류가도 내려 휘발유값이 싸지면 중고자동차수요가 다소 늘어날것으로 내다봤다。

『고객들의 승용차구매패턴이 소형차에 치중되고있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하루거래량의 70~80%가 소형차죠。기름이 덜먹히는등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포니Ⅱ같은 새모델승용차가 선뵈기 시작했지만 신형차의 등장은 1년미만짜리 중고차의 값만 떨어뜨려놓았고 중고자동차수요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읍니다。소비자들의 알뜰구매경향을 반영,賣物은 늘어도실제거래량은 따르지못하는 실정입니다。

李씨는 등록세 완화등으로 중고자동차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를 덜어주어야 중고자동차시장이 활기를 찾게될것이라고 말했다。【銀】

家具업계판도에 變化
大企業진출 手製品회사 잇달아 도산

가구업계의 판도가 바뀌고있다。대기업들이 가구업계에 진출하면서 가구의 대량생산,규격품시대가 시작되고 재래식 수제품회사들은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를 맞고있다。

31일 가구업계에따르면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된이래 물량,선전공세로 가구류에대한수요가 종래의 수제가구에서 공장 대량생산의 규격제품쪽으로 크게 바뀌어 영세수제가구업체중 20%가량은 도산직전까지 가고있다。

三益、現代、보르네오통상、新興木材、上一산업、東西가구、鮮昌산업등 양산체제를 갖춘 대기업들간의 판촉경쟁은 날로 가열돼 3월한달동안 규격제품의 판매고는 지난해 同期에비하면 40%이상 신장된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에따라 재래의 영세수제품가구업체는 새수요 패턴에 밀려 재고가 계속 쌓이는등 극심한 타격을 받아 서울지역의 경우 3백여업체중 50~60개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져있다는 것。

특히 대기업들은 漢陽이침대、화장대、장롱등 혼례가구쪽에、「보르네오통상」、東西가구는 경대 서민용위주에서 50만원이상짜리 고급장롱등을 중점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력분야를정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촉화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샴프·린스市場에 럭키、美와 合作

샴프、린스、퍼머약등 소위 「모발화장품」시장에 럭키가 새로 뛰어들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럭키는 美헬렌커티즈社와 기술제휴、각종 모발화장품을 생산、시판키로하고 상권확보 경쟁에나서 기존의 태평양、한국、라미、한미화장품등과의 과당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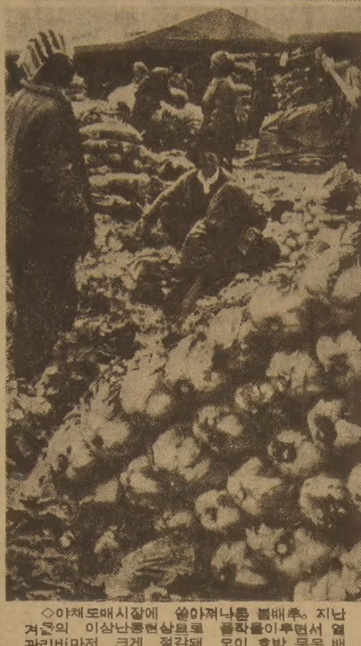
조제粉乳에 原乳함량줄여
農水産部、절약위해 乳獎분말사용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에 우유가 덜 들어가게된다。

31일 농수산부에의하면 현재 조제분유에는 4백50g들이 한깡통에 1.6kg의 원유(분유환산 1백60g)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유소비절약을위해 이것을 1kg으로 줄이고 그대신 乳獎분말(웨이·파우더)을 수입해 사용키로 했다는 것이다。농수산부는 이렇게하면 연간 2만톤의 원유가 절감될것으로 보고있다。

지난겨울 異常暖冬으로 봄채소豐作 가격安定勢

풋마늘·토마토만 올라
保溫費등 줄어 生産者수입은 높아질듯


◇야채도매시장에 쏟아져나온 봄배추。지난겨울의 이상난동현상으로 풍작을이루면서 열관리비마저 크게 절감돼 오이 호박 무우 배추등 봄과채류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있다。

풋고추 오이 호박등 봄철의 채류가 지난 겨울의 이상난동으로 풍작을 이뤄 반입량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있다。31일 농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이 풋고추 호박 풋마늘 상치 무우 배추 딸기 토마토등 비닐하우스재배 과채류가 약10%정도의 재배면적 증가와 지난겨울의 이상난동으로 풍작을이루어 가격이 지난해가격을 밑돌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있다。농수산부당국은 과채류가격이 비교적 낮은수준인데도불구、겨울철의 이상난동으로 비닐하우스 보온비용과 관리비가 적게들어 생산자의 수입은 지난해보다 높을것으로 보고있다。

서울 龍山야채도매상가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과채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날 기준보다 상치 오이 풋고추 배추 무우의 경우 크게 떨어졌고 풋마늘과 토마토만 관당 2백~5백원이 올랐다。

특히 상치는 지난해같은달보다 50%、배추는 46%、무우(햇무우)는 33%나 가격이 떨어졌다。

농수산부당국은 지난해의 봄철 과채류출하가격이 좋아 지난겨울의 비닐하우스재배 봄철과채류생산면적이 전년보다 약10%늘어난 1만여정보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龍山등 야채도매시장의 과채류반입량도 예년보다 10~15%가량 늘어나고 있다。

농수산부당국은 이같이 과채류 가격이 안정된 것은 이상난동의 혜택과함께 남부지방의 무우 배추 주산단지에서 소득이 높은데 비해 재배가 까다로운 과채류 생산으로 전용하는 대신 경험없는 농가에서 소득이 낮은 엽채류인 무우 배추 시금치등을 많이 재배、작목별로 균형재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봄에 생산될 무우 배추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무우 7천톤、배추 1만1천톤등에 대해 재배농가에 5억원의 선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새마을영농회 단위로 계통출하할 계획이다。

乾魚物값 계속하락
수요없자 物量줄어

건어물들의 가격이 수요부진으로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31일 관련상가에의하면 올들어 계속 매기가 없어 값이 낮은수준에 머물고있는데 신통치 않은가격때문에 산지의 물량반출도 줄어 거래도 한산한편이라는것。

시중가격은 ▲김상품이 속당 3천6백원,중품이 3천~2천8백원,하품이 1천3백~1천2백원이며▲멸치는 세멸이 3kg부대당 1만5천~1만2천원,중멸이 7천~6천원,대멸이 5천~4천원▲미역은 호남단각중품이 20장에 1천3백원,울산소단각은 2천~1천9백원,대각은 3천5백~3천원▲오징어는 1.5kg짜리 축당 1만3천5백원(강원도산),1kg짜리 축당 1만원선이다。

감자값 계속떨어져
90kg한가마 7千원…生産費도안돼

감자값이 크게떨어져 재배농가들은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1일 농협에의하면 지난해 감자생산비는 90kg 1가마당 1만원이상 들었으나 최근 시세는 7천원선에 머물고 그나마 사가는 사람도 드물어 생산비이하로 팔기조차 힘들다는것。

이때문에 농협 洪川郡지부같은 경우는 요즘 「감자팔아주기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있으나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값으로도 제대로 안팔리고있다。

정부가 감자를 주식화하자는 갖가지 소비장려시책과함께 감자증산을 권유、감자를 재배한 많은 농가가 적절한 대책을 호소하고있다。

전국 50萬戶에 표준온돌 보급

동력자원부는 가정에서의 에너지節約을 위해 금년중에 標準溫突을 전국 50만戶에 보급키로 하고 이를 各市道 새마을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31일 동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기존주택의 재래식溫突(구들)의 열효율은 20~30%밖에 되지않아 많은 열손실과 함께 특히 煉炭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사고를 근본적으로 대처키 위해 標準溫突을 전국 50만戶에 보급키로했다。

동자부는 이를위해 標準온돌의 구조및 시공지침을 KS규격에 반영하고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건축허가설계도면에 溫突상세도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氷菓類값도 낮은수준
原價상승에도 不況으로

식품세조원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황의 여파로 물건이 잘 팔리지않아 각종 빙과류 가격이 1백~1백50원대의 낮은 가격에 머물고있다。

31일 관련업계에의하면 빙과류메이커들은 제조원료와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지난1년동안 20~30%씩 올랐는데도 물건이 팔리지않아 1개당가격을 1백원~1백50원에 묶어두고 있다는것이다。업계관계자들은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값을 못올려 빙과류의 질이 저하되거나 제품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新商品
가스안전 차단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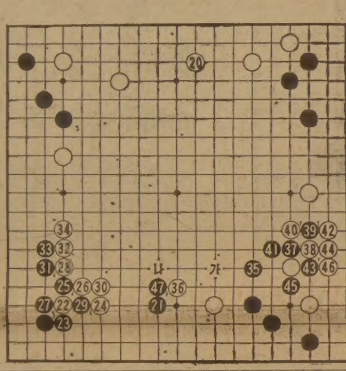
주방에서 가스가 새나오면 즉시 자동적으로 차단시키고 가스 사용량을 23%나 절약시켜주는 가스안전차단밸브(사진)가 개발, 시판된다。

한일企業(대표 都和東)이 개발한 이제품은 아무리 미세한 가스가 누출될 경우라도 0.3초이내에 자동으로 감지하여 밸브가 차단됨과 동시에 경보가 울리며 가스공급을 차단시켜 폭발및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게된다。

또한 23%의 가스를 절약시켜주게된다。프로판가스、도시가스、천연가스 어느것이나 사용、작동된다。☎826~8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3譜 20~46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3勝1敗〉
黑(6段) 張秀英〈3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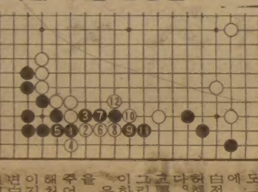


전보에서 白20까지로 된다음은 오직 좌하측 일대가 미개척지로 남게되었다。따라서 黑21은 당연한 好點이고 白22의 어깨짚기도 역시 좋은점、3三에 대한 일종의 상용수법이다。

黑23때 白24는 그냥29자리에 뻗는 형을 자주 보게되는데 이바둑에서는 黑21에 대한 영향도 감안해서 경쾌하게 처리할 요량이다。그리고 黑25이하 白34까지도 정석의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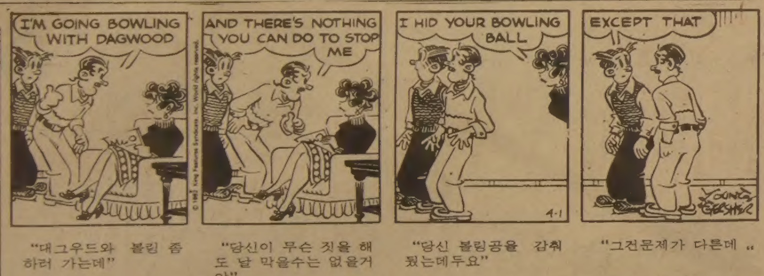
張6단은 黑35를 36분이나 숙고했다。이수로 黑21쪽과 연결하려고 참고도처럼 黑1로 젖히면 白2이하12까지로 오히려 黑3점이 잡혀버린다。따라서 우선 黑35의 요소를 점령한후 상대의 태도부터 살핀 것이다。이수로 「가」는 黑이에 대한 白36은 호착。

주목되는 下邊 공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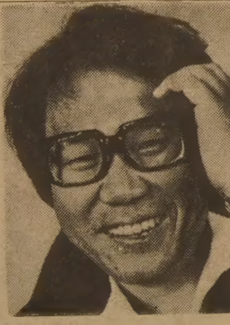
점을 공격하기위한 준비공작이다。그래서 黑37인데 어떨까。일부에서는 黑37이하는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같다고 하지만 張6단은 白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판단이었다。【一凡】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대그우드와 볼링 좀 하러 가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날 막을수는 없을거야" "당신 볼링공을 감춰뒀는데두요" "그건문제가 다른데…"

노래로 福音전파 힘쓰겠다
趙英男 8년간 美 留學끝내고 귀국



국내서 다시 歌手활동 펴기로
神學碩士…한때 牧者의 꿈도
부인 尹汝貞등 가족 7월歸國

가수 趙英男(28)이 8년간의 미국유학끝에 神學碩士가 되어 돌아왔다。그러나 그는 목사가 되리라는 주변의 생각과는 달리 다시 가수의 대열에서 활동을 펴고있다。

『국내에서는 제가 미국에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민을 간 것은 아닙니다。유학생일뿐이지요』

작년12월 한국일보社가 무대에 올린 「에비타」공연차 일시귀국、서울에 머물고 있는 趙英男은 『뜻을 품었던 공부를 마쳤으므로 다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기로 최근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가 도미한 것은 74년。美인디애나주에 있는 종교영화사사장 켄·앤더슨씨의 초청으로 애인 尹汝貞(탤런트)과 함께 도미했었다。

75년 플로리다주에 정착、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을 전공했으며 79년 졸업과함께 논문 「한국기독교신앙의 복음전파에 관하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처음엔 졸업즉시 귀국하려 생각했으나 저서준비관계로 3년 더 머물게 됐어요』

그가 준비중인 저서는 졸업논문을 바탕으로 쓴 「어느 한국청년이 본 예수」로 국내에서 4월말께 출간예정이라고한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동안 목사가 될 것인가、가수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그러나 목사가 될 자격은 갖추었지만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가수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趙英男은 미국유학의 목적을 두가지로 설명한다。하나는 신학공부를 통한 자기완성이고、또 다른 목적은 외국의 문물을 익히고 배워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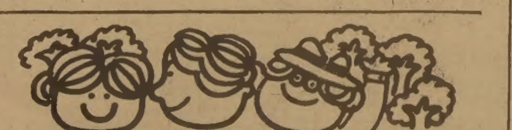
『비록 성직자가 되진 않았지만 노래로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전파에 힘기울일 생각입니다』

자기완성을 가져다준 기독교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밝힌다。그는 지금까지 4차례 고국나들이를 했다。그때마다 고국에서 생활비를 벌어간다는 비난도 따랐다。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주말이면 한인교회를 비롯한 중소도시교회에 성가가수로 초청돼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밝힌다。현재 플로리다주에 살고있는 부인 尹汝貞(34)은 만삭이어서 해산후 7월께 아들 얼(7)과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후 탤런트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한다。【李亨基기자】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한국일보 533-2361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요.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416)533—2361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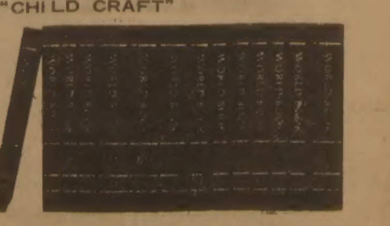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아내의삶」이 맺은인연 太平洋건너 炭鑛村에

광부 金明淳씨부부·在美동포 金久씨

美서 本紙읽고「착한삶」에 갈등…편지교환
母國방문길 聞慶까지 찾아가 반가운 相逢

◇「아내의삶」인연으로 사귀게된 在美동포 金久씨㊥와 金明淳·朴鍾文씨부부。

작년1년동안 한국일보 여성·가정란에 연재됐던 「아내의 삶」 시리즈는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과 갈등을 전해준 시리즈였다. 이 시리즈에 등장했던 金明淳씨 (31·광부 朴鍾文씨의아내·경북문경대성탄좌 대봉사택)는 멀리 미국에서그의 얘기를 읽은 한국일보독자와 따뜻한 因緣을 맺어 다시 갈등어린 화제를 낳고 있다. 金明淳씨는 자신의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렸던 작년 여름 한 在美동포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었다. 이재미동포는「열심히 사는 젊은 부부의 얘기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쓰고, 「휴가때 써달라」며 2백불을 동봉해왔다. 金明淳씨는 이재미동포에게 답장을 띄웠고 계속 편지가오가게 되었다. 모국방문 교포상공인단의 한사람으로 고국에 온 그 재미동포는 지난23일 공식일정의 하루를 빼내어 주소를 들고 聞慶탄광촌까지 金明淳씨 부부를 찾아와 온마을을 놀라게 했다.

『그분이 탄광촌까지 찾아와 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요. 이 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유소와 정비공장을 하시는 金久씨란 분이에요. 이번에 고국에 오신 그 짧은 체재기간동안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반가왔지요』

金久씨를 맞은 金明淳씨와 남편 朴鍾文씨는 잔치를 열어 이웃에 사는 광부들과 그 아내들을 초대했다. 金久씨는 다섯평짜리 작은방 안에 빽빽하게 모인 광부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朴鍾文씨 부부는 미국에서 제가 상상했던것과 똑같았어요. 두분 다 제 상상대로 착하게 생기셨고,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욕심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이란것을 깰 수 있었어요. 고국에와서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분들을 만난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金久씨는 外大정외과를 나와 74년에 도미, 아내 朴春子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아내의 삶」시리즈를 하나도 빠지않고 읽으며 「여러가지 삶의 진실을 배웠었다」는 그는 특히 金明淳씨의 이야기를 읽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삶에 유난히 마음이 옮겨져 편지를 띄웠었다」고 한다.

『이 인연이 저에겐 하나의 사는기쁨을 줍니다. 이부부보다 저의나이가 10세가량 많아 마치 동생부부같은생각이들기도 해요.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 열심히 서신왕래를 해온것이지요. 지난크리스머스때는 金明淳씨로부터 털실로짠 양말 두 켤레를 받아 얼마나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는지모릅니다』

金久씨는 金明淳씨 부부에게 「지난23일에 열어준 잔치비용」이라며 20만원을 억지로 떠맡기도했다. 그는 2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禹桂淑기자】

美貌없는 名優 캐더린·헵번

아카데미女優주연賞 4번째…史上처음

個性있는 연기·知性的분위기가 인기

"美女性매력의 代表"…72세로 아직出演

◇아카데미상 최초로 네번의 여우주연상을 받은 슈퍼스타 캐더린·헵번。

유난히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중성적인 마스크, 빈빈한 앞가슴에 빼적마른 몸매등…아무리 뜯어 보아도 예쁜데가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 올해 72세의 할머니 여배우 캐더린·헵번.

매력적인 미모와 풍만한 육체를 자랑하는 기라성같은 할리우드의 젊은 여배우들을 제치고 할머니 배우 캐더린·헵번이 올해 아카데미상의 여우주연상을 또 받았다. 함께 남자주연상을 받은 名배우 헨리·폰더가 48년만의 첫 영광을 안았을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같은 아카데미주연상을 캐더린·헵번은 무려 네번이나 차지하는 대위업을 이룩했다. 아카데미상이 54회나 계속되는 동안 한번도 없었던 [illegible]이다.

헨리·폰더와 첫번째로 공연한「황금연못위에서」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캐더린·헵번은 11번이나 후보에 지명됐었다. 헵번은 이번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는 워싱턴에서 새영화「웨스트사이드 월츠」를 촬영하고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연기에대한 집념을 펼쳐버리지못하고있는 것이다.

헵번이 아카데미상을 네번이나 수상하게된것은 뛰어난 연기력과 지성적인 분위기때문이다. 그는 강렬한 개성을 지니고있는「연기자중의 연기자」인것이다.

헵번에게 첫오스카상을 안겨준 작품은「승리의아침」. 영화계에 데뷔한지 1년밖에안된 1933년이었다. 올챙이배우가 막강한 선배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대에 섰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었다.

두번째 영광은 35년만에이루어졌다. 5년동안 거의 활동을 하지않았던 헵번은 67년「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화려하게 은막에 돌아와 오스카트로피를품에안았다. 이어 68년도에는「겨울의 사자」에서 보여준 저력있는 연기로 두해 연속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서 헵번은 스펜서·트레이시와 공연한 마지막작품이 되었다. 어쩌면 이번 수상작「황금연못위에서」도 헨리·폰더와의 첫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작품이 될것으로보인다. 「황금연못…」은 병상에 누워있는 헨리·폰더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다.

헨리·폰더의 딸 제인은 시상식에서「황금연못위에서」가 아빠의 생애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헵번 때문일거예요. 아빠는 헵번과 함께 일하고 그녀의 친구가 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여겨요」라고 말하기도했다.

1932년 헵번이 처음스크린 (사랑의 오열)에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저런 추녀가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고 의아심을 품었다. 1m73의 훤칠한 키에 움푹들어간 녹색의 눈, 은갈색의 머리는 어쩌면 심술많은 노파처럼 보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수재였다. 무엇이든 한가지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의 아가씨였다.

헵번은 34년 라드로·스미드와 이혼한이래 줄곧 독신을 고수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다섯아이가 있으나 재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폐쇄적인 사생활때문인지 그의 남성편력을 아는사람은 없다.

헵번은 선천적인 연기를타고난 배우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를 얼굴에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은은하게 풍겨냈다.

그녀의 매력적인 연기력은 오랜 무대생활과 뒷날 획득한 심리학박사로서의 학구적인 조화를 통해 이룩됐다.

헵번은 연기뿐 아니라 영화자체에 남다른 집념을 갖고 있다. 그녀는 68년「마타」란 영화에서 메거폰을 잡아 여감독으로 데뷔하기도 했다.

캐더린·헵번은 1909년11월8일 미국 코네티컷州 하트포드에서 출생했다.

『등서를 통해 가장 놀랄 만한 여성으로 캐더린·헵번을 꼽고싶다. 그는 미국여성만이 지닐수있는 매력을 전부지닌 대표적인 여성이다』

일찌기「旅情」에서 공연한 로사노·브래치가「영원히 영화사에 남을 배우」헵번에게 보낸찬사였다.【金周彦기자】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㉑ (題字 金蘇東)

年間 10科目이수義務 못지켜 큰고초

法學科在學시절

1936년3월까지 법문학부에서 英國法을 전공하는동안 그런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당시 대학의 학점제도는 3년동안의 학부과정에서 32과목의 시험에 통과하면 졸업장을 주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제도이다.

연평균 10과목이상의 학점을따면 되니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 제도다. 왜냐하면 나태한 학생들은 금년에 6과목 통과했으니 내년에 14과목의 학점을따면 될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음 학기로 밀어놓는 타성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때문에 졸업때에와서 당황하는 학생들이많았고 한학기 또는 두학기 혹은1년반이 유보(留保)되어서 졸업못하는학생도 적지않았다.

공부하는 학생이 과외활동이라곤 하지만 왜그리 빈번하게 촬영소나 영화관을 드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누구도 제지할수 없었던 일종의 정신병질환 같은 단독행위를 서슴치않고 자행한 내 자신의 모습을 회고할수 있다. 그러한 배앞의 病이 3、4년동안 癌과 같이 고질화되어갔다. 영화를 보고, 영화를 읽고、영화를 쓰고、영화를 체험하는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과거 1년동안 겨우 5과목의 학점만을 얻은 내자신이 왜그리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앞으로 27과목의 시험에 도전해야할 결심을 하기는 몇번이고 다짐했다. 그러나 좋아하는 예술을 짚신짝같이 버릴수는 없었다.

해방후 서울에서「시집가는 날」을 만든 영화감독 李炳逸군(작고)이 함흥고보를 나와 동경으로 와서 공부하던때다. 그는1930년도초반함흥에서 제작된 영화「딱한사람들」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도있다.

그는 당시 미사끼 (三崎)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후일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공부해보려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후 50년동안 죽같은 길을 걸어온 가장 가까왔던친구다. 이병일과 내가 친교를 맺은것이 바로 이때다.

그는 미모와 멋을 겸비한 젊은이로 특히 의복을 단정히 입는 외국풍조의 청년이었다. 그당시의 젊은이로서는 꽤 새로운 문화의 첨단을 가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가는 곳에 늘 젊은 여성들이 따랐고 스캔들메이커이기도 했다. 그는 사교춤의 명수요, 일본영화인들과의 교제도 꽤 많았다.

그를 따라 동경교외 와리비마찌 (蕨町)에 있는 상크레르라는 나이트 클럽에 갔다. 여기에는 온통 교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우굴 우굴했다. 와세다, 중앙대, 일본대, 명치대학의 교가들을 재즈음악으로편곡해서 연주해주곤 했다.

말하자면 대학생을 위한 댄스홀이라고나 할까, 꽤나 특수한장소다. 최근 서울에서 유행하는 고고클럽같은 곳에 비유할수있는 곳이다.

『어려울것 하나도 없어, 블루스나까, 리듬에 맞춰서 걸어다니면 되잖아』 그는 내손에 댄스 티키트몇장을 쥐어주면서 오색광선이 빙빙 돌아가는 장내로 나를 밀어넣었다.

◇故 李炳逸감독。동경 학창시절에 사귄 그는 50년동안 나와 같은 길을 걸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

課外활동구실 撮影所·영화관 출입
李炳逸감독과 親交…社交춤도 배워

그가 알선한 댄서가 내곁으로 다가와서 춤을 청했다. 한번 춤을 추는 댓가로 춤이 끝나면 30전짜리 티키트한장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때 풍습이었다. 어리둥절해서 그를 껴안고 추는척은 했으나 그의 발등을 밟거나 방향을 리드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창피하다고는 생각하지않았다.

두번째부터는 그에게 춤을 춤줄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솔직이 고백했다.

『야ㅡ 심장이 튼튼하기도 해란』그는 솔직하고, 과감하고, 소박한 학생이 좋다면서 멋지게 돌아가는 와중에서 스텝을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다. 알지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울것 하나도 없다는 내신조가 그날밤의 내심장을 튼튼하게 했다.

이때만해도 사교춤을 추는 한국학생들은 그리 많지않았고 또 경제적여건이 춤방에 다닐수도 없었다.

사교춤이란 우리에게는 개화와 문명의 첨단이기도 했다. 얼마후 월츠, 탱고, 트로트등을 능숙하게 출수 있었다는 것을 퍽이나 극성스럽게 생각했다.

病床의 헨리·폰더 첫榮譽

演技생활 47년만에 男優主演賞차지

54회 아카데미賞 시상식

헨리·폰더와 캐더린·헵번이 첫공연한「황금연못 위에서」로 나란히 제54회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女優주연賞엔 캐더린·헵번
監督賞 워런·비티… 元老들이 演技부문 휩쓸어
최우수 作品賞「불의 전차」

2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뮤직센터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은 24년올림픽실화를 그린「불의 전차」(감독 휴·허드슨)에 돌아갔고「공산주의자들」의 워런·비티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올해 76세인 헨리·폰더는 연기생활 47년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며 캐더린·헵번 (72)은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차지, 아카데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배우가 됐다. 「황금 연못…」서 임종을 며칠 앞둔 남편역을 훌륭히 해낸 폰더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황금연못…」서 공연,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그의딸 제인이 대신 수상했다. 제인은 『아빠는 지명된 다른 배우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아카데미상은 사과와 오린지중 어느것이 좋은가를 가려내는것에 비유되죠. 아빠는 이 그룹에 끼게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요』라며 감격을 감추지못했다.

토크쇼의 1인자 조니·카슨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카슨은『제임즈·캐그니와 프레드·아스테어가 지난해 영화에 복귀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며 말문을 열었고 여우조연상발표를 시작으로 영화인의 대축제가 시작됐다.

「황금연못 위에서」는 헨리·폰더의 마지막작품이자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각본상을 받아 3개부문을 휩쓸었다.

남우주연상을 놓고 헨리·폰더와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워런·비티는 그의 야심작「공산주의자들」로 최우수감독상을 받았는데 그는 지금까지 4번이나 남우주연상후보에 올랐었다.「공산주의자들」은 비티가 감독·주연·각본·제작을 맡아 화제를일으킨 작품으로 12개부문후보에 지명됐으나 여우조연상 (모린·스태플튼)·촬영상등 3개부문수상에 그쳤다.

모린·스태플튼(56)은 무정부주의자 엠마·골드먼 역을 잘 소화해내 함께 후보에 올랐던 제인·폰더를 물리쳤으며 父女가 오스카상을휩쓸것이라는 예상을 깨뜨렸다.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불의 전차」는 24년 올림픽에서 서로 다른 이유때문에 경쟁하게된 올림픽실화를 그린 영국영화. 콜린·웰런드의최우수 원작상과 최우수 작곡상 최우수 의상 디자인상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불의 전차」의 수상은「황금연못 위에서」와「공산주의자들」이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었다.

◇워런·비티

◇존·길거드

◇모린·스태플튼

남우조연상은 코미디 영화「아더」의 존·길거드경(77)이 받았는데 영화 출연 58년만의 영광이다. 또한「아더」의 주제가「Best that you can do」가 최우수 영화 주제가상을 받았다.「Best…」는 크리스토퍼·크로스가 불러 캐스박스 선정 톱텐에 4주간 수위에 랭크되어 우리의 귀에도 익은 곡이다.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놀랄만한 일은 최우수외국영화상부문에서 일어났다. 폴란드군사정부가 외국영화상후보에 오른「철인」을 빼어달라해서 정치적인 주목을 끌었는데 의외에도 헝가리의「메피스토」가 수상했다.

「메피스토」는 자기영혼을 팔아먹는 파우스트의 얘기를 현대화시킨 내용으로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치유니폼을 입고 등장한다.

◇「황금연못위에서」서 공연중인 헨리·폰더㊧와 캐더린·헵번。

올해 처음으로 시상된 최우수 분장상은「런던의 미국인 이리」에서 젊은 청년을 이리로 분장시킨 분장사 리크·베이커가 수상했다. [illegible] 국내에서도 상영중인 스필버그감독의「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들」은 최우수미술감독상등 4개의 기술부문상을 받았다.

이번 아카데미 영화상에는 연륜많은 원로배우들이 무더기로 상을 휩쓴게 가장 특색이었다.

한편 그레고리·펙은 이미 수상이 결정된 코미디언대니·케이에게 진·허숄트인도주의상을 시상했고 존·트래볼타가 바버러·스탠위크에게 특별상을 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내털리·우드, 윌리엄·홀든등 명우의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묵도이 된것 같아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채 진행됐다.

◇부문별수상자(작)

▲최우수작품상=「불의전차」▲최우수감독상=워런·비티(공산주의자들)▲최우수남우주연상=헨리·폰더(황금연못위에서)▲최우수여우주연상=캐더린·헵번(″)▲최우수남우조연상=존·길거드(아더)▲″여우조연상=모린·스태플튼(공산주의자들)▲최우수원작상=「불의전차」▲최우수각본상=「황금연못위에서」▲최우수작곡상「불의전차」(반젤리스)▲최우수의상디자인상=「불의전차」(미레나·캐노네로)▲최우수시각효과상=「잃어버린성궤의추적자들」▲최우수다큐멘터리상=「집단대학살」▲최우수단편만화상=「크랙」▲최우수촬영상=「공산주의자들」▲최우수음향상=「잃어버린…」▲최우수외국영화상=「메피스토」(헝가리)▲최우수편집상=「잃어버린…」(마이클·칸)▲최우수주제가상=「아더」「Best that you can do」▲최우수미술감독상=「잃어버린…」

【美할리우드=[illegible]】

女性短信

家庭法律 특강마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매주목요일 하오2시부터 가정법률강좌를 마련하고있다. 4월의 강의는 다음과같다.

▲1일「호적절차」▲8일「채권·채무」▲15일「약혼」▲22일「혼인·사실혼」▲29일「이혼」.

素亭會 꽃꽃이展

꽃꽃이연구가들의 모임 素亭會(회장 朴英愛)는 9일~10일 로얄호텔 3층에서 꽃꽃이 전시회를 연다. 「花藝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1백40작품이 발표되며, 朴英愛씨가 수집해온 우리나라 전통꽃꽂이 자료1백50여점과 11세기 古墳벽화그림을 함께 소개한다.

패션평론가회 발족

한국패션평론가회가 새로 발족됐다. 회장 김천씨, 총무 황인환씨, 감사 박석기씨로 임원진을 구성한 패션평론가회는 앞으로 연구발표및수상 디자이너 선정 사업을 벌이게된다. [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⑨

간판은 대중 음식점으로 돼있었으나 소슬대문과 값비싼 관상수, 석등(石燈)과 연못이 있는 넓은 정원, 세벌대 높은 댓돌위에 누각처럼 웅장하게 솟은 안채의육간대청으로 보아 고급요정이었다.

인재와 헤어진 수지는 마음이 울적해서 가운을반납하고 학위증 받는 급하지않은 일에 이러저 시간을 보내며 늑장을 부리다가 도착해보니 회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고모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많이 기다린듯 조바심으로 초췌해진 표정으로 염란이 짜증을 부렸다.

『미안해요, 언니. 볼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고모하고 같이 졸업한 우리 친구들도 벌써 와서 식사하고 이차하러 갔어요』

『관둬라. 오자마자 몰아주기부터하면쓰냐. 수지야 이리온. 할미옆에앉거라. 배고프지?』

외할머니가 수지를 끌어당겨 옆의 빈자리에 앉혔다.

요정의 안방은 삼사십명도한꺼번에 치를수있을만큼 넓고 온통 자개장롱으로 둘러싸여 있어 휘황했다.

먼저 식사하고간 사람도더러 있는듯 자리가 드문드문 비어있는데도 아직도 스무명 정도의 손님들이 남아있었다. 낯선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그녀는 올케한테 야단맞고 몸둘바를 모르는 시늉으로 고개를 움츠리고 낯선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목례를 했다.

수지는 올케가 벼르고벼른 졸업식날을 기해 마련한 그 낯선 식구와의 회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자리에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맞선볼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늑장 부리다 놓친것도 맞선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게 싫은 것보다 더 나쁜지도 몰랐다. 맞선에 대해서 거의의식하지도 않았으니까.

『얘가 글쎄 이렇답니다요』

자신의 중대사에 대한 이런 무관심은 그녀의 태도에도 넉넉히 나타나있어 외할머니가 민망한듯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변명했다.

사람들은 충분히 포만해보였는데도 상위엔 아직도 많은 산해진미가 남아있었다.

아직도 무얼 먹고있는 사람은 수지 바로 앞자리의 젊은 신사 한사람밖에 없었다. 그는 정신없이 거대한 영덕게의 살을 후벼파먹고 있었다. 게 살에 대한 그의 탐식은 너무 열렬해서 그의 깔끔한 용모와 잘 안어울렸을뿐더러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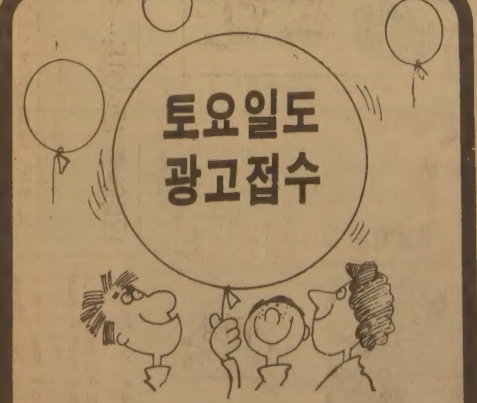
그러고보니 외할머니 옆자리는 우연이아니라 미리 마련된 그녀를 위한 자리임을 알수 있었다.

내가 색시감이라면 너는 바로 신랑감이렷다. 영덕게의 완강한 갑각속에서 교묘하게 그 감미로운 살을 후벼파먹는 신사의 희고 유연한 손가락과 견강한 치아를 번갈아 바라보며 수지가 할수있는 생각은 고작 그 정도였다. 자신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차라리 편했다.

수지도 잘 알고있다. 염란의 친구되는 부인이 참다못해 그의 등을 쳤다.

『기욱아, 게 좀 작작 먹고 인사 먼저 하렴. 색시 놓는다고 조바심 하느라 먹는건 건성이더니 별안간게맛이 그렇게 났건 또 뭐나? 우리 노총각이 글쎄 이렇답니다』

누나의 핀잔에 사람들이모두 웃었다. 기욱이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노래를하러 일어선줄 아는지 짝짝짝 손뼉을치는 아이도 있었다. 수지도 슬그머니 즐거워졌다.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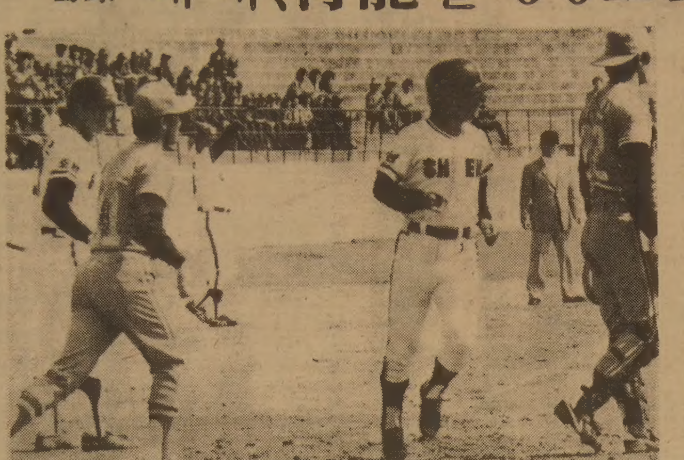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無等山 호랑이 猛威 떨쳐

프로野球 해태、靑龍을 6-0으로 완파

金城漢 선제…打棒 불붙여
金勇男 5회까지 호투 無安打


◇金一權홈인　MBC靑龍과 해태타이거스의 대전。대표선수에서 제명, 프로로입단한 해태의 金一權이 1회말 3번 金城漢의 2루타로 홈인하고 있다。【光州=電送聯合】

【光州=方錫崎기자】無等을 등진 호랑이의 기세는 당당했다。스타 金一權을 맞아들인 해태타이거스는 3번 지명타자 金城漢의 첫득점타를 비롯、안타수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MBC靑龍을 6-0으로완파、1만여光州팬들의 환호에 보답했다。해태의 우완 金勇男은 5회까지 MBC타선을 무안타로 막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3안타、4四死球 6삼진으로 완봉승을 기록했다。

【MBC―해태】釜山서의 1패를 안고 홈그라운드에나선 金東燁감독은 그 답지않게 신중했다。1회초 포볼을 고른 준족의 1번 金一權의 도루찬스도 기다리지않고 2번 車榮華에게 보내기 번트를 지시했다。때맞추어 3번지명타자 金城漢의 중전적시타로 풍운아 金一權은 프로데뷔전에서 첫 홈베이스를 밟았다。4번 金奉淵의 좌전안타로 뜻하지않은 사태가 발생했다。金의 좌전안타로 金城漢은 3루까지 뛰었고 좌익수로부터 볼을넘겨받은 MBC의 3루수 金仁植이 2루를노리던 타자주자 金奉淵을 견제하다 악송구를범해 金城漢은 불로소득의 1점을 추가했다。

해태는 8회말 또다시 金城漢을비롯한 상위타자들의 집중포화로 4점을 추가、승리를 굳혔다。MBC의 白仁天감독은 1회말 金奉淵의배트가 사용금지된 압축배트라고 항의、경기가 중단되었으나 光州개막전에 흠을남기지않기위해 양보의 미덕을 보였다。

◇31일전적
▲광주
MBC 000 000 000―0
해태 200 000 04×―6
▲부산
OB베어스 000 000 000―0
롯데자이언츠 000 030 10×―4
▲대구

롯데、OB 꺾고 2승
三星은 三美에 첫승리

【釜山=李鍾南기자】롯데자이언츠가 OB베어스를 4―0으로꺾고 2연승으로 선두에 나섰다。롯데는 31일九德운동장에서 벌어진 OB와의 첫대결에서 5회말 선두 4번 金用熙가 좌익선상 2루타를 친것을기폭제로 4四死球、스퀴즈번트2개로 단숨에 3점을얻어 승기를 잡았다。OB베어스는 좌완黃泰煥을 선발로 기용、4회까지 퍼펙트로 막아냈으나 金用熙에게 1타를 허용한후 컨트롤난조를 보여 패전투수가 됐다。관중1만여명。

【大邱】三星라이온즈가 강타자 李萬洙의 활약으로 三美슈퍼스타즈를 5―1로 꺾고 2연패끝에 1승을 올렸다。31일 大邱 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3일째 三星라이온즈와 仁川 三美슈퍼스타즈의 두번째대결에서 홈팀인 三星은 成洛秀의 호투를 발판으로 李萬洙의 적시2루타2개를 포함한 9안타로 낙승、28일 첫대결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三美·슈퍼스타즈 100 000 000―1
三星라이온즈 200 200 10×―5

◇전기중간성적

	승	무	패
OB	1	0	2
三星	1	0	2
三美	1	0	1
MBC	1	0	2
해태	1	0	1
롯데	2	0	0

국가代表 金一權 해태선수로 뛰어

金一權(28)이 프로선수로 뛰게되었다。아마 야구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프로야구 입단등록이 보류되었던金一權은 31일 대한야구협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金一權을제명、대표 선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프로 입단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이에따라 金은 31일 光州에서열린 MBC와의 대전서 해태선수로 출전했다。

成大 7安打로 서울大 셧아웃
大學야구 이틀째

대통령기쟁탈 제16회 전국 대학야구대회 이틀째경기가 31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成均館大가 서울大를 9―0으로 대파하고 2회전에 진출、中央大와 4강진출권을 겨루게되었다。成大는 3회초 裵星華의 투런 홈런을 비롯、7개의 안타를 터뜨렸다。서울大는 8회말 林始奎가 좌전안타를 기록했을뿐이다。

◇제2일1회전
성균관대 212 021 100―9
서울대 000 000 000―0
▲홈런=裵星華(3회·2런·성대)

車範根 침묵깨고 오랜만에 2골

【본30日AP=聯合】西獨프로축구 아인트라흐트·프랑크푸르트팀의 車範根은 3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벌어진 보루시아MG팀과의 홈경기에서 혼자 2골을 기록、오랜 부진을 깨고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프랑크푸르트팀은 이날 3―0으로 이겼다。프랑크푸르트팀은 이 경기의 승리로 이날 현재 12승2무12패를 기록、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으며 보루시아MG팀은 11승8무7패로 4위를 고수하고있다。

大一·徽文무승부 中高 아이스하키

제16회 전국중고 아이스하키연맹전 이틀째경기가 31일 동대문실내링크에서 열려 大一高와 徽文高는 2―2무승부를 기록、1승1무로 나란히 A조선두를 지키고있다。같은조의 培文高는 仁川體高에 5―4로 역전승、1승1패가 됐다。

◇제2일전적 ▲A조
대일고 2 (1―0, 0―1, 1―1) 2 휘문고 (1승1무)(1승1무)
배문고 5 (2―0, 2―2, 1―2) 4 인천체고 (1승1패)(2패)

씨름協 執行部개편

대한씨름협회 蔡元植회장은 31일 집행부를 구성、발표했다。

◇집행부 명단 ▲회장=蔡元植 ▲부회장=金鍾弘 崔重元 鄭海植 趙鏞衡 白南斗 ▲전무=余有相 ▲총무=白慶鏞 ▲재무=尹鍾相 ▲이사=李權植 ▲경기=金吉秀 ▲기획=[illegible] ▲시설=[illegible] ▲감사=[illegible]

쇼와女高농구팀 崇義여고에도져

日本 쇼와(昭和)한일여고팀과 아이찌(愛知)縣선발고교팀 초청 韓·日고교농구 친선경기 2차전이 31일 장충체육관서 열려 쇼와여고는 崇義女高에 65―58로 패해 2연패를 당했다。아이찌 선발팀도 明知高에 52―36으로 패해 1승1패를 마크했다。

◇2차전
▲여고 숭의 65 (23―36, 32―22) 58 쇼와
▲남고 명지 52 (21―19, 31―17) 36 아이찌선발

中共서도 보너스
女子 排球 우승에

【北京AP=聯合】中共은 작년11월 日本에서열린 제3회월드컵 배구선수권대회 우승을따낸 여자배구팀 선수12명과 코치들에게 각각 3천元(약1백11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中共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운동선수들에게 현금보상을 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여자배구팀은 보너스외에 봉급이 3단계인상 되는 특전을 받았다。

忠義·關東大 결승토너에
대통령배 蹴球 全南大·成大도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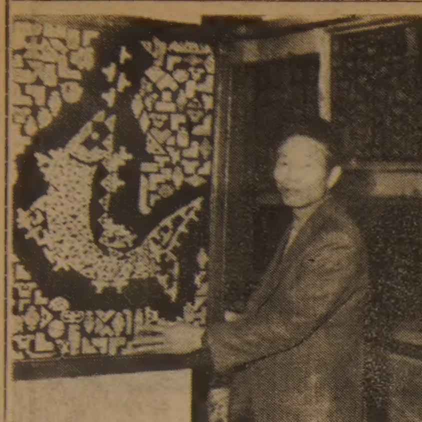
忠義와 關東大도 제3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의 결승토너먼트에 올랐다。31일 李昌구장에서 속개된 8일째 4조경기에서 關東大는 忠北大와 1―1로비겨 2승1무로 수위를차지했다。또 실업정상급대결인 9조 서울市廳과 忠義의대전도 0―0으로 비겨 양팀모두 2승1무의 전적을 기록했으나 대회규정에따라 다득점의 忠義(득4)가 서울시청(득3)을 제치고 조1위가 됐다。

한편 議政府에서열린 8조 경기에서는 全南大가 그동안 호조를보였던 嶺南大를 2―1로 제압했고 水原에서 속개된 5조 成均館大와 慶尙大의 대전서는 成大가 3―1로 이겼다。

◇제8일전적
▲4조
관동대학 1 (0―1, 1―0) 1 충북대학
건국대학 2 (2―0, 0―2) 2 외환은행
▲등순위①관동대2승1무 ②건국대1승1무1패 ③충북대1승1무1패 ④외환은1무2패
▲9조
충의 0―0 서울시청
▲8조
전남대학 2 (1―1, 1―0) 1 영남대학
▲5조
성균관대 3 (0―1, 3―0) 1 경상대학

祖上의 숨결·叙情 한자리에

晋州 金昌文씨 「李朝家具장식紋樣박물관」 개관


金昌文씨가 박물관안에 전시돼있는 이조장식문양을 가리키고

30년동안 全國방방곡곡돌며 蒐集
장롱·손궤등 진귀한것만 20여만점

【晋州】諸福康寧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李朝의 장롱은 우리들어머니의 모든정성이 담겨진 물건일뿐 아니라 집안살림의 근본이며 간결한형태、느티나무의 빛나는 색감과 무늬、주석장식의 독창성이 조화를 이룬 공예미의 극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조상의 손때와 온갖 정서가 그대로 담긴 장롱、서랍、경대、손궤、자물통등 이조시대 각종가구류에 붙어있던 장식품을 모아온 한수집가가 개인적으로「이조가구 장식문양 박물관」을 개관、우리조상들의 얼을 빛나게 하고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박물관은 경남晋州市 大安洞13의10에서 양화점을 경영하고있는 金昌文씨(60)가지난 30여년간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李朝장식품 20여만점을 한데 모아 회갑을 맞은 20일 회갑기념으로 晋州市大安洞 227의2에 아담하게 세운것。

이날 개관전시된 장식품은 장석이 3천여 종류에 20만점、자물통과 자물쇠가 1백80종류에 2천여점이나된다。조상들의 정서와 애환、땀과 예지와 생활사가 담긴 이 민속자료들은 시대별·종류별·무쇠별로 나누어져 전시되고있는데 전문가들은 우리의전통민속을 이해하고 조상들의 슬기와 숨결을 다시한번 음미할수 있을뿐아니라 나아가 우리 겨레의 빛나는 문화전통을 과시할 쾌거라고 평가했다。

金씨가 30여년동안 외곬로 이조장식품을 수집해온것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나 시세에 편승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었다。

金씨가 이조장식품을 모으게 된것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였다。가정형편이 어려워 별로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양화점에서 구두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어느날 양화점앞에서 엿을 팔고있던 엿장수의 엿판위에 나뒹굴고 있던 녹슨 자물쇠통을 갖고싶어 사들여 보관한것이 수집의 시작이 됐다。

하나 둘씩 재미로 사모은것이 쌓여갔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느덧 20여평 남짓한집앞뜰에가득했다。사들이고 보니 문양도 다양했고종류도각양각색이었다。나열해보니번쩍번쩍빛나는 장식품등 우리조상의 섬세한 솜씨가 수려했다。

이때부터 金씨는 양화점일을 뒤로 미루고 농촌 구석구석을 돌며 닥치는대로 사모았다。

金씨가 지금까지 모아온 장식가운데는 나비장식 박쥐장식 귀잡이장식 팔봉장식등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춘 진귀한 것들이 많다。

또 자물쇠의 종류도 수박자물쇠 대롱자물쇠 붕어자물쇠등 수백종에 달해 조상들의 예지에찬 솜씨는 물론 이조5백년부터 최근세까지의 장식품 발달과정을 한눈으로 파악할수있게 나열해 놓았다。

또 지방의풍습에따라기법·모양도약간씩 다르다。충청도와 경기도 지방에서 수집한「千秋萬歲」이라고 새겨진 자물쇠는 우아하고 은은해 귀족적인 냄새를 풍기는반면 경상도지방의 대롱자물쇠는 소박하고 실용적이며 전라도지방의 장식은 백제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기교가 넘치는게 특색。또 평양반달이 장석은 장석앞바이가 크고 무늬가 섬세한것이 특징이다。

10년전 충청도지방에서 여섯차례나 걸음을 한끝에 4만원을주고 사들인 수박자물쇠통은 잘때도 한번더 확인할만큼 기품이있어 가장아끼는 소장품중의 하나라고 金씨는 말했다。

時代·종류별 展示…독창성 극치 民俗자료

옛조상들은 손으로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하나의 민구를 정성들여 만들었으며 요즘 기계적으로 찍혀나온 개성없는 대량생산품과는 다른뚜렷한 개성을가진예술작품이라는것이다。

또 섬세한 도안、감성과 자연직관이 조화되어 단순소박하면서도 정확、예민한 예술의 정수를 이루었다고 金씨는 자랑이 대단했다。

이조장석이 크게 변혁을 가져온때는 19세기초부터 20세기초로 구한말의 풍운이 장식에까지 은연중에 영향을끼쳐 재료가 주석에서 백동으로바뀌었고 문양이나 각선처리도 신선한 현대감각을 따르고있다。

이는 이조의 잔영이 사라지고 서민들사이에도 신시대의 유행이 강하게 스며들었음을 말해주고있다。

이날 개관식전에나온 한 수녀는 나비모양을한 장롱의 장식을어루만지며 옛날 이북에서 살때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의장식과 꼭같다며 울음보를터뜨려 박물관 개관장은 한때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이기도했다。

이는 곧 분단된 조국의 슬픔과 어머니의 손때묻은 정성이 딸에게 전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기도했다。

金씨는 이같이 우리조상들의 슬기를 한자리에모으기까지 부모의유산인 금싸라기땅 1천6백평까지 팔았으며 부인과 6남매의자녀로부터무능가장이란오해까지한때받았다고털어놓았다。金씨는『그동안모아온 이조가구의장석에 대해기록으로남길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말하고『비록 개인이낸 조그마한 박물관이지만 이조서민예술을 배우는데 학술적인 가치가된다면 언제든지 공개해 관람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朝家具裝飾紋樣博物館」은 우리의 전통민속을 이해하고 재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하게될것은 물론、장식문양및목공예장식연구에 크게 공헌하게될것으로 기대된다。【[illegible]】

排球에이스 張允昌… 웃음을 잃었다

家長인 큰형은 癌으로 눕고 집세도 못내 거리로 나가야
아랍進出막은協會 生活보장 食言

◇시름에 잠겨있는 남자배구대표팀 에이스 張允昌。중병에걸린 형을 간호하기위해 30일 泰陵선수촌서 일시 퇴촌했다。

張允昌에게 웃음을 되찾게 할수는 없을까。

30일 태릉 선수촌서 일시 퇴촌한 남자배구 대표팀 에이스 張允昌(23)은 서울 城東區 九宜洞 451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눈물로 밤을 지샜다。암선고를 받고 필사적으로 병마와 싸우고있는 큰형옆에서 張允昌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었다。그에게 닥친 시련은 이것뿐이 아니었다。4월초부터는 홀어머니마저 거리로 나서야할 형편이다。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安養의 단칸방은 4월초로 기한이 끝나게되며 다른곳으로 옮겨야 한다。그러나 돈을 마련하다가 생바라지를 버리고 말았다。安養 근교 농장에서 품일로 생계를꾸려왔던 어머니마저도 몸이 성하지 못하다。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누구한테 동정을 받기도 싫습니다。형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있으면서도 꿋꿋한 태도를 잃지않고 있다。

張을 잘알고있는 배구인들은 배구협회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다。지난해 아랍 에미리트에서 1억원의 조건을 내걸고 張을 스카웃하려 했을때 협회서는 국가대표팀 전력약화를 이유로 張의 해외진출을 불허하고 아파트등을 제공、안심하고 운동에만 전념토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반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만약 張이 에미리트에 진출했었다면 지금쯤은 국내로 돌아왔을 것이며 지금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쩔쩔매는일은 없었을것이라고 배구관계자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다。張의 딱한 형편이 泰陵선수촌에까지 전해져 나머지 대표선수들도 우울한 분위기에 싸여있다。【金仁奎기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서비스업 사업체수

구분	개소
총계	91,841
숙박업	28,569
이·미용업	49,469
이용업	26,400
미용업	23,069
목욕탕업	3,671
수영장업	136
유기장업	9,996
당구장	4,513
탁구장	2,341
기원	702
골프연습장	82
기타	2,358

◇음식점 사업체수

구분	개소
계	152,508
전문음식점	3,383
대중음식점	23,511
간이음식점	89,554
일반유흥음식점	2,828
특수유흥음식점	233
간이주점	13,157
과자점	3,787
다방	15,508
휴게실	178
유흥전문음식점	369

◇의료관련 등록자수

구분	인원수
의사	25,579
한의사	3,015
치과의사	3,620
간호원	40,373
간호보조원	61,072
조산원	4,833
의료기사	8,955
영양사	10,016
이용사	66,019
미용사	82,700
조리사	40,870
약사	18,626

(1980)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총就業人口 1천2백39만명

5분의1이 농사…기능공·技師는 4백15만명

우리나라사람은 과연 어떤직종에 얼마나많은 분포로 종사하고있는가。경제기획원통계에 따르면 지난연말현재 전국의 취업인구수는1천2백39만8천명。이중 남자는 8백2만7천명이고 여자취업자가 그절반 수준인 4백19만1천명이다。

이중 농사를 짓는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5분의1가량인 2백54만8천명。기능공과 단순노무자등 직접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각종 장비등을 포함한 운전技士가 전체의 3분의1 정도인 모두 4백15만5천명에 이른다。

理·美容師、수리업、호스티스등을 비롯 각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백23만4천명이고 이중 절반이상인 69만7천명이 여자다。

이중 등록된 이발사수는 6만6천19명、미용사가 8만2천7백명에 이른다。

전문기술職이나 과장급 이상의 행정관리職에 종사하는 사람은 79만1천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6.3%。

이에 비해 1백27만5천명이 이들 관리직밑에서일반사무직으로 일하고있다。

슈퍼마킷지배인이라든가 화장품外販員 같은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백10만6천명이고 나머지 28만9천명이 어업이나 수렵업에 종사한다。

전문기술직 가운데 의사는 연말현재 2만5천5백79명、약제사는 1만8천6백26명이고 한의사 3천15명、치과의사가 3천6백20명이다。

간호원은 4만3백73명、간호보조원이 6만1천72명으로 간호직이 10만명을 넘는다。

국가공무원 43만3천명·의사 2만5천명
다방 주점등 15만2천·호텔 여관2만8천

국가공무원수는 금년 예산상 43만3천7백30명으로 되어있고 이중각급학교 교원수가 18만6천9백52명、경찰관이 5만7천4백22명으로 되어있다。

이들 공무원중 중앙부처 아닌 산하관서의 과장급이상인 사무관급이상이 1만2천7백21명으로 말하자면 정부기관의 행정관리직을 맡고있다。

술집의 호스티스나 다방의 여자종업원수가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된 통계가 없어 알수가 없지만 일단 각종유흥음식점、다방、간이주점등 음식업체수가 80년말현재 15만2천5백8개소에 이르고 있음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을것 같다。

전국적으로 각종 유흥음식점이 3천4백30개소、다방이 1만5천5백8개소、간이음식점은 8만9천5백54개소、간이주점 1만3천1백57개소、과자점이 3천7백87개소、일반 대중음식점이 2만3천5백11개소에 이른다。

그밖의 서비스업체수도 대단하다。호텔、여관、여인숙등 숙박업소가 전국에걸쳐 2만8천5백69개소、이발관이 2만6천4백개소、여자미용실이 2만3천69개소에 이른다。棋院은 전국에 7백2개소、탁구장이 2천3백41개소、당구장이 4천5백13개소에 이르며 골프연습장은 82개소로 나타나 캬바레、디스코、웨이터홀등 이들 총9만1천8백41개소에 이르는 종업원수도 엄청난수에 이를것을짐작할수있을것같다。

한편 1천2백39만8천명의 전국취업인구중 自營業主는 [illegible]백28만명、부인이나 아들등 가족구성원이 농사나 집안사업을 돕는경우가 1백50만1천명、日當근로자가 1백17만명、임시職이 91만8천명이고 나머지 4백5[illegible]만8천명이 常用고용상태에 있다。

"첼로旋律과 함께 40年 『만족스런 演奏』가 소원"

첼리스트 全鳳楚씨…내달3일 紀念공연

防音된 연주실 문을 열자 첼로와 피아노의 깊고 맑은 소리가 갑자기 눈부시게 살아나온다。가장 친한 친구사이인 첼리스트 全鳳楚씨(62)와 피아니스트 鄭鎭宇씨(53)가 서로의 선율을 맞추는 연습을하고있다。두사람은 오래전부터 듀오(二重奏)연주회와 피아노3중주 리사이틀을해와 연주호흡이 제일잘 맞는 奏者들이다。

아름다운 小品만 20曲골라

◇연주생활 40년기념연주회를 갖는 全鳳楚씨(左)와 鄭鎭宇씨(右)。두사람은 음악계에서 가장친한 친구사이로、연주호흡이 제일잘맞는 奏者로 통하고있다。

피아니스트 鄭鎭宇씨와 2重奏로 "우리는 호흡잘맞는 친한친구사이"

『이번 듀오의 주인공은 全선생이에요。올해로 연주생활 40년을맞는 全선생은 저의10년선배님이시고、그같은 선후배입장을 넘어 평소、마음을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지요』

鄭鎭宇씨는 오는 5월3일에 열「연주생활 40년기념二重奏」에서 자신의연주는 全鳳楚씨에 대한「우정있는 同伴」이라고 표현한다。

全鳳楚씨는 이 연주회에서 메뒤브르와의「組曲2번」등 작고 아름다운 小品 20곡을 들려준다。그는 지난 40년간 17회의 첼로리사이틀과 수십회의 3중주를 가졌다。그 동안의 연주는 모두 연구발표회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무겁고 복잡한 큰 곡을 연주해 왔다。

『이듀오는 40년 연주생활을 돌봐주고 지켜봐주신 모든분들에 대한 서비스연주회와 같은 것이지요。그래서 서비스 연주답게 듣는 분들도 즐겁고 저 자신도 즐거운 아름다운 소품들만을 골랐어요。달콤한 곡、센티멘털한 곡도 많이 연주될거예요。鄭鎭宇씨의 밝고 화려한 피아노의 도움을 많이받게 되지요』

全鳳楚씨는 鄭鎭宇씨만큼 그의 음악의 뜻을 금방 읽어내는 피아니스트가 없는것같다고 말한다。피아노는 독주악기로서 담담한 위치에 서지만、다른종류의 악기를 넓게 감싸주고 받쳐주는 包容的인 악기이어서 鄭鎭宇씨와의 연주로 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鄭씨는 특히 全鳳楚씨의 악곡 해석 방법을 쉽게 알아차려、즉흥적인 악곡 변주나 해석도 거의 틀림없이 잡아 받쳐준다。두사람은 아직도 한달 남짓남은 연주회를 위해 매일같이 만나 레퍼터리를 정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2、3분짜리의 작은 곡도 수백번 되풀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다른 곡으로 넘어간다。

『음악가는 자기의 피로움과 고통을 통해 다른이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하루도 연습시간을 빼먹을 수가 없고、한번 음악회를 가지려면 한 곡을 놓고 수백번이라도 되풀이 훈련해야 하는 음악가의 苦行은 修道僧에 뒤지지 않는것 같아요』

全鳳楚씨는 처음에는 바이얼린으로 음악을 시작했다。11세에서 중학3년때까지 바이얼린을 배우다가 첼로독주회에서 [illegible] 키는듯한 첼로의음색에 반해 첼로를 다시선택했다。그는 당시 첼로로 바꾼것을 자신에게는 다행으로 여기며 첼로를 하는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그러나『더 좋은연주가가 되지 못한데대해선 항상 불만을 느껴、40년 연주생활동안 만족하게 끝낸연주회는 한번도 없었다』고 겸손해한다。

『얼마전 가톨릭의대에서 음악이 사람의 생리、의학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관계등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요。음악과 인체의 상관관계는 세계에서 자주 연구되는 테마인데、아름다운 음악 건강한 음악은 인체의 심리적인 치료기능을 가지고있다는 내용이었지요。요즈음 스위치를 누르면 건강치 못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것같아 음악환경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씨는 서울 의대를 졸업、의사로 일하다가 피아노로 직업을 바꾼 피아니스트다。오스트리아의 빈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서울 音大에서 22년째 봉직하고 있다。全鳳楚씨는 日本제국음악학교를 나와 첼로라는 악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첼로음악을공부한 음악인이다。그는 첼로에 40년의 세월을 바치며 첼로를 키는 사람을 많이 볼 수있는 눈이 생겨 다른 좋은첼리스트를 정확하게 지적해 낼수 있게 됐다고 한다。【高桂瀾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한국을 보러가자" 觀光客러시

관광업계가 오랜만에 호황을 맞았다. 올들어 한국을찾은 외국관광객의수가 부쩍 늘어난데다 국적도 종래의 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와 구미각국으로 점차 다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와함께 국내관광객도 4월연휴(4, 5일)를 피크로 전국의 유명관광지가 크게 만원이다。국내외관광객이 이처럼 러시를 이루는 것은 올들어 통금이 해제되고 88년올림픽및 86년아시안게임유치등 국내외의 관광여건이 크게 호전된데다 관광업계의 東南亞, 유럽등을 상대로한 관광객유치다변화노력이 효과를 보기시작한것으로 분석되고있다.

東南亞·歐洲쪽 손님많아
국내觀光도 連休맞아 피크

31일 교통부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3월23일현재 입국한 외래관광객은 모두 23만8천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9만8천명보다 4만명이 늘어났고 증가율로도 지난해12%보다 3%가 많은 15%를 기록했다。

또 늘어난 관광객의 국적을보면 기존관광시장인 일본, 미국등이 각각 12.9%, 7%증으로 평균 신장률에 밑도는 반면 東南亞국가가 무려 64%의 증가를 보였고 유럽인등 기타국가가 23%나 대폭 늘어났다. 臺灣은 평균치를 약간웃도는 15.7%증가였다.

이같은 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호텔업계도 그동안의 불황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평균객실판매율 70~80%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일급호텔들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단체관광객에대한 객실 덤핑판매도 그 수량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인관광객이 전체관광객의 45%를 차지하고있는 이들의 관광패턴이 철저한 「주말관광」패턴으로 굳어져가고있어 호텔등관광수용시설은 주말에 동이나고 주중에는 텅비는 불균형현상을 빚고있다。

금요일에 몰리고 월요일에 빠지는 금요관광객때문에 최근관광업계는 금요비상이란 유행어까지 나돌 정도。

지난 20일 일본의 春分節 연휴때는 하루 7천여명의관광객이 몰려 서울시내 특급호텔 객실이동이났고 평소7만달러의 매상을 올리던 金浦、金海、濟州의 관광공사 면세매점수입이 하루 30만달러까지 치솟는 호황을누렸으며 오는 4월29일 연휴(日天皇생일)가 있어 4월에도 日人관광객은 크게 늘어날형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휴나 주말에 몰리는 일본인관광객들은 무턱대고 롯데·신라등 특급호텔만 찾고있어 여행업계는 방을 못잡아 아우성이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관광객들의 자세에도 문제가있지만 그보다는 국내특급호텔들이 불황을 이유로 그동안 덤핑객실판매를실시, 일본인들의 버릇을 잘못들여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수는 약1만1천실이고 특급은 4천실정도인데 일본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특급으로「1인1실」을 요구해 객실공급에 어려움이 크다는것。

관광업계는 늘어나는 관광객과 일본인의「주말관광」수요를 메우기 위해서는▲특급호텔이 관광한 덤핑판매를 자제하고▲1·2급호텔 시설을 개선、관광시장에 적극 홍보하고▲시설을 갖춘 유드호스텔과 비즈니스 호텔등을 적극 개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관광도 예년에없던 활기를보여 식목일 연휴인 4~5일에는 雪嶽山、慶州、濟州등 국내 중요관광지 호텔예약이 1백% 완료됐다。

濟州의 경우 KAL·그랜드호텔등 8백16개의 객실이 이미 3월중순께 예약이 끝났으며 일본인관광객까지 몰려 대한항공은 3일과4일 서울─濟州간 하루좌석공급수 1천3백석으론 모자라 3편의 특별기를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내 관광버스1천1백도 연휴동안 모두예약이 됐다。【金善宗기자】

일부대학생 左傾化에 충격
文敎部 學園대책 전면再檢討키로
高神大학장·學生과장 引責

문교부는 30일 부산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의 범인들이 「좌경의식화」된 대학생조직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학원대책을 전면 재검토,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의 확대실시 ▲학생지도체제의 강화및 문제학생에 대한 사전지도、좌경화된 대학생의 발본색원등을골자로한 종합대책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방화범들이 소속한 高神大에대해서는 학생지도감독 소홀을이유로 학장、학생과장、방화범의 지도교수를 인책키로하는한편 금명간 高神大에 관계관을 파견、대학내의 학생활동 현황과 관련학생들의 배경、서클활동의 성향분석등에관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학생의 좌경화 경향이 나타나고있는 일부 종교계대학등 일부대학에 대해서는 문제학생명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의식성향과 서클、배경등을 집중 분석키로하는한편 대학내의 좌경화경향을 막기위한종합대책을 세우기로했다。

교수회의를 열고 이사건의범인 金恩淑(24·기독교육과4·수배) 李美玉(21·의예과2) 朴鍾植(20·의예과2) 崔忠彦(19·〃)등 4명을 출학처분(재입학편입 불가능)했다。

高神大는 또 이사14명 전원이 참가한가운데 긴급이사회도 열고 국민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채택했는데 李학장의 사표수리는 사건이 마무리될때까지 보류키로했다。

國家보안法 적용

한편 경찰은 방화범들을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대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다룰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女學生 1명추가 검거放火犯 5명

한편 수사본부는 30일하오 崔貞純(22·여·부산大3년)을 방화조의 일원으로 추가 검거、범인은모두5명이됐다。

崔는 李美玉 金恩淑과 함께 알콜묻은 솜에 불을붙여 방화했었다。

한편 방화조 李美玉은 경찰에서 고3년때부터 선배金恩淑을 알았고 대학에들어와 金의소개로 文과도 알게됐으며 범행은 3월초 文이제의、셋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고 진술했다。

"文富軾커플을 찾아라"
연고지搜索·不穩서클 집중수사

【釜山=盧基昌기자】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文富軾(25·高神大4년제적)과 金恩淑(24·여)의 행방을 쫓고있는 경찰은 31일 文의 연고지인 서울과 大邱、仁川등지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압축시키고 일대의 문제 학생이나 배후조직과의 관련여부에대해 집중수사중이나 행적을 찾지못하고있다。

경찰은 文의애인 金과함께 행동한것으로 보고 이들이 은신할 가능성있는 서울의 매부(61·永登浦區汝矣島洞) 집을비롯 사촌외가 매형등16가구의 연고지를 뒤지는한편 文의자취방에서 돈을받은 메모지를 발견、文일당과 관련을맺고있는 불온 이념자들이 많은것으로 보고 이들도 수사중이다。

메모지는 B여대앞 징검다리다방 음악신청용지로 「정미7000、순복7000、경신7000、서울3만」등 7명의 이름과 돈의액수가적혀있고 뒷면에는『한국신학대학신학과4년、그날이 올때까지 뜻있는자들의 힘이되어주세요』라고 씌어있었다。

한편 치안본부는 文과金이 李鎬哲처럼 종업원등으로 가장、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전국경찰에 수색을 강화하도록 지시、은신처가 드러나면 관할 서장이나 관계경찰관을 엄중 문책키로했다。

『한편 부산高神大는 이날상오 李根三학장 주재로 긴급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m)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手術승낙서 완전 免責아니다
執刀중 실수 責任져야
大邱지법 醫師에 2천9백만원내라 判決
혹 除去수술후 손 마비… 호프만式 노동력 算定

【大邱】의사가 수술하기전 결과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수술승낙서를 환자로부터 받았다해도 수술에 과실이있을경우 승낙서가 의사의실수에 대한 면책효력을 가질수 없으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大邱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鄭鏞仁판사)는 31일 李章熙씨(32·大邱市中區東仁3街11의11)등 일가족 8명이 大邱市中區南山洞2街모외과의원 원장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李씨는 원고 李씨 일가족에게 2천9백46만2백5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피고 李씨가 환자 李씨의 혹제거수술을할때 혹에 구성돼있는 상박신경총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기울여야하고 또 신경을끊고 수술을 했을때도 즉시신경을잇는 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이혹을 단순한 결핵성 임파선염 또는 육종으로 보고 수술、원고 李씨의 오른손이 마비되도록 수술에과실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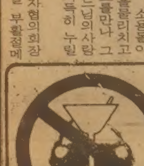
한편재판부는 원고 李씨가 수술당시30세로 월급30만2천원을 받는 정상인이므로 55세까지의 노동력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하여 피고李씨는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밝혔다。【聯合】

"명예욕·利己心을버리자"
金추기경 復活節메시지

가톨릭 金壽煥추기경은 31일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최근에와서 교회가 외적으로 눈에띄게 성장한것은 우리민족 전체의 영적갈증을 풀어주기위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수있는지 찾아나서고 이를 실천에 옮기자고 호소했다。

金추기경은 인간들의 온갖 미움과 욕망、이기심과 명예욕、좌절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짓눌린 어둠을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만나 그분의 도움으로 하느님의사랑과 친교를 모두 가득히 누릴것을 기원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兪虎濬목사도 이날 부활절메시지를 발표『예수의 부활은 그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것이며 고통과 슬픔과죽음의 저주아래서 허덕이는 인간에게 기쁨과평안과 영원한 삶을 보장한 진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慧哲꼬마스님 오늘手術
誠金잇달아 모두 천9백53만원

속보=심부전증을 앓고있는 사미승 慧哲스님(본보24일자 11면)에게 31일에도각계의 성금 2백73만8천원이 들어와 성금총액은 모두1천9백53만8천원이 됐다。

慧哲스님은 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李維求박사의 집도로 심장수술을 받는다。

접수된성금은 다음과같다。

▲시흥2동 샛별APT12동403호 김태식 2、000▲홍은동 박광예 1、000▲시흥1동526의6호 이헌기 5、000 원영회 3、000 박일부 3、000▲시흥2동 조흥샛별APT12동204호 조전조、명화순 5、000▲시흥2동 조흥샛별 APT9동302호 이신교 5、000▲서대문구남가좌동248의21 8통3반 崔始烈、崔志旭 5、000▲서대문구남가좌동175의108호 염교철 2、000▲서대문구남가좌동248의21호 8통3반 최병욱、최대열、최종열 5、000▲서대문구남가좌동48의21 최하열 3、000▲서대문구남가좌동175의32호 유수일、김점순 3、000▲경기도강화군길상면온수리 전등사 90、000▲양산군신평리 보광중고등학교 교직원및 학생일동 615、000▲濕陽佛日會一同 50、000▲조계사 20、000▲익명의보살 200、000▲대전石岡居士 100、000▲수락산 내원암 100、000▲도봉구수유1동 488 삼성암 100、000▲청운등 김현수居士 100、000▲마산시동성동189佛子一同 110、000▲남대문시장 익명의보살 100、000▲익명의보살 1、000▲경기도수원시화서동 화서아파트255호 박정자 5、000▲동해생명보험 나원영업소 김명자 10、000▲동작구노량진1동67의16 고영희 10、000▲관악구봉천9동622의117 나윤창 5、000▲충남천안시원성동266의25 이춘미 10、000▲김정자、정동훈、조화숙아가씨 헌혈증서3장외 현금 20、000▲충남서산군팔봉면어송리2구 문봉진 1、000▲익명보살 50、000

쇠고랑겁난 30代社長
운전사에 輪禍떠맡겨
法廷구속

【釜山】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黎仁平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후 자가용운전기사가 사고를 낸것처럼 꾸민 동남섬유대표 金孝鍾씨(34·南區南川洞 삼익아파트12동302호)를 법정구속하고 중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 벌금10만원을선고하는한편 운전기사 김의곤씨(26·釜山鎭區凡川2洞)에게도 범인도피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차주인 金씨는 지난81년2월16일 하오11시께 운전사金씨를 운전석옆에 태우고 자기소유인 강원1다5614호 마크포 승용차를 운전、釜山鎭區草邑洞 럭키유지앞길에서 길가던 東萊區鳴藏洞거주 김태호씨(32)를 치어 8주의 중상을 입힌후 운전사金씨에게 생활비지급、법적뒷처리등을 맡아주기로하고 교통사고를 낸것처럼 꾸며 경찰에 신고토록했다는것이다。

김씨는 경찰에 허위신고로 운전사가 구속되었다가 검찰에서 풀려나 불구속기소됐었다。【聯合】

政府혼합곡에 보리 많이섞어
쌀 7백90부대 빼내

【春川】 강원도경은 31일 정부미도정업자 정인교씨(32·강원 旌善郡 旌善邑 鳳陽里 338)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旌善군 농산물검사소장 申興善씨(50)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79년1월부터 80년9월사이에 정부양곡을 도정·포장하면서 혼합곡은 쌀과 보리의 배합비율을 7대3으로해야되는데도 6·5대3·5로 배합、쌀을 빼냈고 단일미의 경우에는 포장기의 추를 조작해 부대당 1백50g씩 빼내는 방법으로 모두 7백90부대를 빼돌려 旌善郡 新東邑 安모씨(46)등 3명에게 판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정씨를 수사하면서 농산물검사소장 申씨가 쌀1가마를 뇌물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수사하고있다。

와인버거의 勳章
평생동안 훈장을 만든 蔣明根옹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에 큰뜻

윤기흐르던 검은 머리가 어느덧 「파뿌리」처럼 희어졌다。無名용사에게 주는 조그맣고 소박한 훈장에서부터 30일 와인버거美국방장관에게 수여된 장중한훈장(보국훈장통일장)에 이르기 까지、정부수립직후부터 지금 진행중인 82팀스피리트훈련에참가、韓美장병들에게 수여될 훈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훈장치고 蔣明根옹(76·사진·서울 鍾路區觀水洞130의2 精工社 대표)의 손을 거치지않은것이 없다。

蔣옹이 경영하는 精工社가 48년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정부지정훈장제작소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蔣옹이 최근 제작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은 美國에서 차례로 우리나라를 찾아올 손님들에게 수여될 훈장들。韓美간의 넓고 깊은 유대를 상징할 선물이다。

半白의 蔣옹은 지금도 돋보기 안경을 낀채 銀용해─壓延─裁斷─거더작업─출질─沙布질─보석작업─뻘질(용접)─천달기작업등 작업과정을 직접 돌보고 완성된 훈장에 固有일련번호를 새기는 일을 손수한다。

蔣옹이 훈장제작과 인연을 맺게된것은 자신이 金銀방을 경영、뛰어난 금은 細工기술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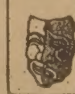
蔣옹은 정부수립직후 훈장제작에 참여케된 당시를 회고하면서『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다는 감격과함께 훈장제작을 통해 建國사업에 참여、돕는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때렸던 것 같다』고 회고한다。

당시엔 사회가 혼란해 훈장재료가 되는 金銀의 운반과 보관에 경찰관이 입회、보호를 했고 6·25때 金銀재료、거대(原型)등 훈장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챙겨 걷고 업어타고 公州、大田을거쳐 釜山으로 피난한 기억이 더듬어 진다고했다。

정부가 釜山서 還都한 직후에는 李承晩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경무대앞뜰에서 정부각료들이 도열한 가운데 대통령개인표창을 받고『그대가 훈장을 애써 만들어줘 국산훈장을 수여할수 있게됐으니 노력해서 더좋은 훈장을 만들어 달라』는 격려와 당부를 듣기도 했다。

蔣옹은 34년간의 훈장제작으로 청춘을 보냈지만 앞으로도 건강이 괜찮은 동안까지 작업일선에서 손을 떼지않을 결심이다。

이번에 정부가 와인버거장관에게 준 훈장은 그가 만든 여느 훈장과 다를바가 없다。그러나 의미는 다른점이 있을지 모른다。한미수교 1백주년의 해에 「한국의 안보상황」을 직접 보았다는 기념으로서의 의미일 것이다。蔣옹의 훈장사는 또한번 뚜렷한 역사의 나이테를 둘렀다。【河長春기자】



北傀서 색다른主張
"淸川江 옛이름 薩水잘못 지금의 遼東반도의 大洋河상류"

【서울=聯】北傀는 30일 高句麗때 乙支文德 장군이 隋나라의 대군을 맞아 물리친 薩水가 현재의 淸川江이 아니라 遼東반도(現中共 遼東省)에 있는 大洋河의 상류지점인「서자河」였다고 주장했다。

北傀는 이날 한 방송에서 현대적 기계화수단이없던 당시 隋의 상황에서 隋나라 수십만의 병력이 平壤근방까지 처들어온다는것은 군사학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다면서 薩水전쟁의 정확한 위치를 연구한 결과「大洋河상류 서차河」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주장했다。

北傀방송은 또 우리나라역사상「事大주의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高句麗였으며 따라서「반동적인 新羅전통」을 타파하고 高句麗를 올바르게 평가하게 됐으며 이같은 일련의 역사작업이 金日成의 지시와 배려로 이루어지게됐다고 주장하는등 우상화선전을 늘어놓기도 했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상품기증

○.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 진주목걸이,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세트(미도파)
○.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 (블루아안경점)
○.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 금일봉 $150 (제일여행사)
○. 홈·셑트($100 상당)(블루아 하드웨어)
○. Webster 사전 (3권) (신용목)
○.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 금일봉 ($100) (황재필)
○.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상품기증 하실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람.
☎ : 755-9288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 캐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 '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홍 대 ☎ : 493-8894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366-2673, 366-2206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인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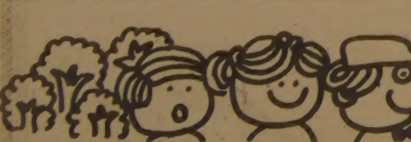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카펫·카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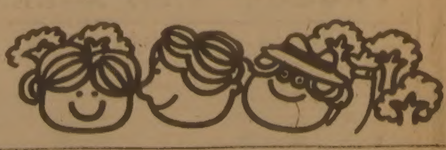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 박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입주하셔서 4명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아 주실분 찾습니다.
전화 : 827－7057 Mrs. 최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다운타운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미시사가지역)
(Burnhamthorpe Rd. W. × Mavis)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 토 전화: 769－9854, 762－1572

오리엔탈팔레스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전화 : 533－3545

Baby Sitter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전화 : 532－1054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499－4459, 299－1431

매매및 양도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K. C. HERLT REAL ESTATE CO.
TEL : 487－8187 Mr. Martin

맥스 밀크 프렌차이스 팝니다.
연락 : 368－0686, 292－2024 (저녁)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바쁜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300
리 스 : 10 Years
Call :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 '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 m－7 p. m.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MIKE MUNCHIES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2812 BATHURST ST.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VARIETY STORE 시설과 스탁 급매
2607 Eglinton W.
전화 : 789－0501 Mr. Singh

Corner에 위치한 가게 세놓습니다.
(St. Clair × Silverthorn)
1734 St. Clair. W. 전화 : 742－0434

타사업관계로 살림집을 포함한, 버라이어티·그로서리·드라이크리닝 사업을 할 수있는 가게, 미니멈 가격으로 급매코져함. 오전 10시~오후 8시. 전화 : 783－0134 Bobby.

가정의 벗 한국일보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좋은 위치에 자리잡아 많은 단골손님을 갖고 있는 미용실 팝니다.
장비 : 드라이어(6개), Heat Light, Styling Chairs(5개) Basins(3개), Waiting Area
전화: 255－9324 Carmen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하우스 렌트

셋방 있음.
1베드·룸 + 부엌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파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파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핀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869－0589,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식 당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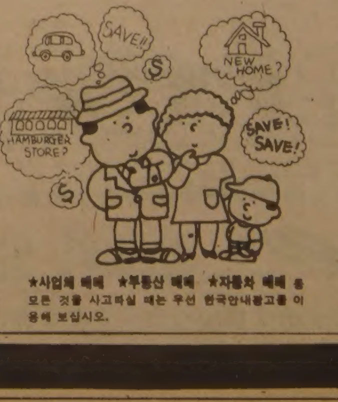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국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5일에 $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한국일보 안내광고＊